

제320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0월4일(금)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4. 법률안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5. 현안보고
 - 가. 국사 교과서에 관한 사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2.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4. 법률안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24
5. 현안보고	26
가. 국사 교과서에 관한 사항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4일부터 시작될 201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 등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국사 교과서에 관한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신학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로 마련한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

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20일간이며, 실제 감사 일수는 13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유관 기관과 시·도 교육청을 합하여 총 104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연합뉴스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 선정 감사 대상 기관은 98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은 6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중앙 감사반의 경우 위원 전원 으로 구성하고, 지방 감사반은 1반, 2반 각각 15 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정은 교육부는 14일 교육부 청사에서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문화재청과 관광 관련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은 16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각각 실시하는 등 교육부 소관 7일, 문화체육관광

부 및 문화재청 소관 5일, 현장시찰 1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방 감사는 감사 1반, 감사 2반으로 나누어서 10월 24일 및 25일의 1박 2일 동안 시·도 교육청과 거점 국립대를 감사하는 일정입니다.

마지막 2일간은 국회에서 확인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신학용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서류 제출요구 건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1만 3005건입니다.

오늘 전체회의 의결 이후 위원님들이 추가로 제출하실 서류제출요구서에 대하여도 우리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의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건너뛰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기홍 간사님!

○유기홍 위원 지금 여야 간의 증인 채택에 대한 간사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도 그런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

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부실검정 문제, 그리고 친일·독재 미화·왜곡 문제가 가장 커다란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증인 채택 요구가 여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께 자료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채택표가 오늘까지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8종 교과서 모두에 대한 수정 작업을 실제로 지금 각 교육청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가협의회의 명단,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마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데도 대단한, 그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에 있고 이게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교사 필자 세 명이 자신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교학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오늘까지도 도대체 교육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참고인 채택에 있어서 지금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교사 필자 세 명의 그 내용증명을 자료도 미제출하고, 사실 그 세 분을 참고인으로 야당 측에서 요구했는데 일단 교육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봤으니 자료가 오면 굳이 세 사람을 불러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세 명의 참고인 채택을 여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권희영, 이명희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필자가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역사교과서 필자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세 명의 참고인을 부르건 아니면 그 내용증명이 자료로 제출되건—물론 이 두 개는 엄격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그 어떤 것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로 오늘 현안질의를 맞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선 위원장께서는 교육부장관께 이 자료제출, 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지 질책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증인·참고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

하게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세 명의 내용증명 제출 그리고 이 세 명의 참고인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우리 장관께서는 어저께도 위원님들이 요청했는데 그 내용증명은 얼마든지 보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단 저희가 자료제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에게 제출된 내용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정·보완 자문위원회나 이런 명단은 지금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진행 중에 그런 명단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감추고 싶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 수정·보완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명단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장관님, 교학사 측에 협조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협조 요청보다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이나 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수정·보완 작업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뭐 그런 취지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유기흥 위원** 말씀드렸던 대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그 부분은……

○**유기흥 위원** 교육부에서는 내용증명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당은 그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내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루라는 말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지금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역사교과서가 출판되는 당시에 이게 다를 때는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역사교과서가 출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하고 직접 관련되지는……

○**유기흥 위원** 여섯 명의 필자 중에서 세 명이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성명 표지가 달라지는 거고 취소사유가 돼요. 그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증명도 보지 못하고 세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내는 것조차 여당에서 동의 안 해 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학용** 장관님, 그것 어차피 나중에 다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민간 기업이 안 준다 하더라도 사실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기흥 위원** 아니, 협조 요청조차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야 위원들이 그날 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김장실 위원님.

○**김장실 위원** 지난 5월 교학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에 앞서서 본심사에서 통과를 하자 민주당과 또 언론 일부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구 선생·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로 묘사됐다’,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서술했다’……

○**유기흥 위원** 이게 의사진행발언이면, 아까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왜 여기서 다시 얘기하세요?

○**김희정 위원** 다른 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유기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니지 않습니까?

○**김장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군위안부를 성매매업자·자발적인 경제단체로 서술했다’,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 ‘4·19 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폄하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날 공개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는 그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을 그쪽 방향으로 오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7종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오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인용을 해 가지고 막상 밝혀지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 가지고 아무런……

○김태년 위원 기자회견을 두 번째 하시네요.

○김장실 위원 말씀을 그냥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 발표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이 기자회견했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서 8종의 교과서가 모두 수정·보완할 사항들이, 팩트나 여타 부분에 대한 사실들이 틀린 것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보완이 필요한 작업에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우선 박홍근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의사진행 관련해서 세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우리 야당 간사께서 내용증명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라도 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안 하셨지요, 장관님? 오늘 중으로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 답을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국정감사라든가, 사실은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고 있고, 그게 설령 출판사에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지금 이 출판 교과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후에 이 문제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책임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안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그것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 먼저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협조 요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이 현안질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기자회견문을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좋습니다. 뭐 주장은 서로 자기의 시각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 사초 은폐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교문위 위원님들이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언제 민주당이 사초 은폐에 앞장섰습니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사과를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영익 위원장님.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박홍근 위원 제가 그저께 질문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염동열 위원 아니, 질의하는 겁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예요?

○박홍근 위원 아니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왜냐하면……

○염동열 위원 박 위원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태년 위원 염 위원님, 지금까지 다 듣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신학용 자, 염동열 위원님. 어차피 이야기되고 있으니까요.

○박홍근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아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다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관련해서.

왜 차관급인 정무직 공무원이 여기에 와 가지고 첫 자리부터 거짓말로, 위증으로 국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무슨 말씀인지 다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우선 건국절 관련해서도 당시에 거짓말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향신문, 2008년도 7월 23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발언을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요?

○박홍근 위원 예, 기조연설자 참석한 바 없습니까? 그것도 부인하시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게 저는 좀 기억이

없는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경향신문의 보도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박흥근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15 하면 광복절로 받아들였지 건국기념일을 생각하지 못했고,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니면 없었던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본격적인 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질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왜 위증을 했느냐, 거짓말을 하나 이 얘기입니다.

○김태년 위원 왜 답변을 위원장님 임의대로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건국절을 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박흥근 위원 제가 그러면 이 경향신문……

○김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아니요, 위증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 왜 첫 자리에서부터 거짓말로 답변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고문 문제 관련해서 제가 오늘 사진도 다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관련된 그 사진, 그리고 대안교과서 감수도 스스로, 그쪽의 공동…… 포럼이 얘기를 합니다.

○염동열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제지 좀 시켜 주세요. 계속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신학용 의사진행발언은……

○염동열 위원 아니요, 지금 벌써……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꼼꼼하게 감수까지 했다고 본인께서 이렇게까지 답을 합니다.

왜 첫 자리에서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이 신성한 상임위 자리에서 거짓 답변을 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金世淵 委員 위원장님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자, 이 문제는 다투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을 하더라도, 질의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신 말씀들 다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검증될 것입니다.

○강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학용 예, 강은희 위원님.

○강은희 위원 지난 2일 날 열렸던 상임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위안부가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동원되었다고 서술한 부분을 문제삼아 검정을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나 이렇게 다른 교과서도 검정을 해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살펴보니까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금성출판사 외에 다른 등에도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서 동원되었다고 서술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염 위원님, 이것도 제지시킵니까요?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요.

○강은희 위원 끝까지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학사 외에 다수 교과서에도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들어가게 되면 마치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이 1944년 이후부터 동원된 것처럼 배우는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치 교학사 교과서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다른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러면 다른 교과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는 거지.

○강은희 위원 예, 다른 교과서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를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서,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는 사실 독도 문제,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을 일삼고 있는 교과서인데 마치 우리나라 교과서를 이러한 문제와 연결을 시키고자 한 이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너네 교

과서나 잘해라' 이런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봤을 때 우리 교과서 전체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장관님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이미 유포된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유은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교학사 교과서 정말 꼼꼼히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오히려 김장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는 반대로 이 교학사 교과서가 공개가 되고 나니까 그 문제점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교과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서 8개 종류의 교과서가 검정 과정에서 어떤 점수를 어떤 기준에 맞게, 어떻게 받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요청하고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왜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서 검정은 일종의 합격·불합격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점수 이상이 돼서 검정 합격이 되면 그 이상의 점수 자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채점한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뒤에 그 교과서를 각급 학교에서 채택하거나 이럴 때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재정 위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합격·불합격이라는 검정 제도의 기본 골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검정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은혜 위원 장관님, 제가 알기로 과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를 검정했을 때 신청했던 교과서의 검정 통과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번에 검정된……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검정 통과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은혜 위원 높았던 게 아니고요. 과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을 했을 때에는 신청한 도서의 50% 정도밖에는 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9개 종류 중에 딱 한 개만, 그런데 그것은 역사교과서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고 8개 교과서가 모두 다 검정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 교과서는 이미 사용했었던 교과서였고요. 교학사 교과서만 새로운 교과서였습니다.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두 종류가 새로 제출이 되어서……

○유은혜 위원 그런데 한 종류는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 외에 한 종류가 더 새로……

○유은혜 위원 그러면 지금 교학사 교과서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 그 여덟 개 교과서 전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채점표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학사 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것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교학사 교과서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정감사 할 때 저희가 여덟 개 종류의 교과서와 관련된 참고인 다 채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장관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여덟 개 종류의 교과서를 모두 수정·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지시를 못 내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수정·보완하라고 하실지 지시를 못 내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검토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교학사 교과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너무나 명백하게 많은 부분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몰 타기 하기 위해서 다른 교과서 문제점 들추려고 하니깐 시간이 그렇게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신학용** 장관님, 우선 지금 자료제출의 첫 번째, 제가 우리 유기홍 간사님 이야기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이 요청한 교학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냥 내용만 확인을 했고 공식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지금 정부 측에서도 할 수 없다, 있다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의 생각과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출판사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잠깐만 계세요.

그다음에 채점표는 지금 말씀처럼 절대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金世淵 委員**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이런 여러 가지 교과서와 관련된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한 단계 한 단계 이 절차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 중에서 크게 불거진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해방 시기 그리고 건국과 호국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시각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검정교과서 체제로 근현대사가 분리되면서 지금 이렇게 오늘의 사단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검정교과서를 사실 저도 이번에 하나하나 살펴 보면서 좀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바로잡지 못했었는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팩트 오류, 사실관계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오류를 넘어서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위 ‘악마의 편집’이 상당 부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교과서라 하면 연대순으로 서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후 관계를 바꾸어서 배치함으로써 마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이 실제와는 전혀 다른 데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밖에 없게끔 교과서 편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 오류와 함께 기술의 편향성 그리고 역사 인식의 오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지를 열어 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니까?

○**김태년 위원** 예, 하겠습니다.

자료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9월 11일 날 장관께서 역사교과서 8종에 대한, 국사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그때 그 이유가 예비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러니까 즉 예비조사를 해 봤더니 “모든 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보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걸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9월 11일 발표 시점 이전에 예비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그럼 예비조사를 했으면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뭐 특별한 보고서는 없……

○**김태년 위원** 장관께 보고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보고서 없이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예비……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회의록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육부의 실무진들이 예비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제가 누가 했느냐를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든지 간에 예비조사를 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비조사를 한 보고서, 지금 내가 누가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예비조사를 했던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거기 특별한 보고서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회의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회의석상에 장관님 책상 위에, 앞에 올라온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 형태의 보고서든 무슨 보고서든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장관하고 실무진들하고 회의할 때 언제나 회의 자료를 갖고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기홍 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7종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8종 다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유기홍 위원** 교육부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김상희 위원** 아니, 실무진이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래서 그 실무진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김상희 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오늘 보고 내용 중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하여튼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9월 11일 날 예비적으로 죽 조사를 했더니 모든 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야당 위원들이 방문해서 면담하고 난 2시간 후에. 그러면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근거, 그러니까 8종 교과서에 뭐, 뭐,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건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발표문도 그랬고 방금 답변도 그랬잖아요. ‘예비적으로 죽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예비조사를 해 봤더니 모든 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보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문을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아무것도 없다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다는 얘가지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달라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그 근거가 8월 30일에 검정교과서가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발표된 내용을 보고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에 그 8종 교과서를 입수를 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봐라, 문제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죽 얘기를 했더니 ‘그런 표현상의 문제점들이 이 교과서 저 교과서 하는 데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어서 한번 심도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두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제가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예요. 실무자가 죽 다, 장관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교과서 전부를 한번 봐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실무자가 죽 다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라고 장관께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8종 교과서 모두

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지시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이 교과서에서는 뭐가 문제이고 이 교과서에서는 뭐가 문제이고 이렇게 보고를 한 근거, 내용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없다고 하세요?

얼마나 지금 교육부가 불량하냐면 오늘 현안보고를 보면 9월 11일 날 장관께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2쪽 하단에 보면, 그리고 방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예비검사를 해봤고 8종 모두에 대한 수정·보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발표를 해 놓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아주 애쓰는 흔적이 보여요. 교육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2쪽 하단에 보면 예시 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균형 잃은 교과서’ 어찌고저찌고 이것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실었어요. 이것 언제 보도된 건 줄 아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뒤에……

○**김태년 위원** 9월 30일 날 보도되었어요. 9월 11일 날 수정·보완 방침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 언론보도는 9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를 해 놓고 나서 균형을 맞추려고 매우 애쓰는 흔적이 보인다니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차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료가 하도 안와서 ‘오늘 현안보고인데 자료 협조 좀 해 달라’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교학사 저자 3인이 교학사에 보냈다고 하는 내용증명과 관련해서 그것 좀 협조해 달라” 했더니 “교육부는 갖고 있지 않아요. 알아서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저께 우리 상임위 할 때 존경하는 유기홍 간사 위원께서 장관께 질의를 했어요.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깐 장관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취소 사유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검토를 해 봤다고 한다면 검토했던 근거, 즉 그 내용증명, 그 내용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내용이……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관께서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실무자가 파악해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실무자가 파악해서 보고를 했다. 그래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언론 내용하고 일치하느냐?” 그랬더니 “일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 답변은 “언론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뭐가 진짜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이학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정리를 할게요.

이건 빨리 교학사에 협조 요청 하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으면 왜 해야 되겠다는 근거는 있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답변이?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자료로 만든 것은 없고요. 저희 실무진에게 지시를 해서……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실무진이 했는데 실무진도 만든 게 없고 그냥……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때 모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우선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은 여기 있는 게 9월 30일 자 신문 내용이란 것 확인하셨어요?

○**김태년 위원** 예.

○**김상희 위원** 저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 위원**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게 진짜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은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되지 이게 전체 무슨 질의 시간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또 자료 요구도 이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돼서 한다고 하면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도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 갖고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고 만약에 확인하신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개인의 본질의 시간보다도 훨씬 길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또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나서서 하다 보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의사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배재정 위원님.

○배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교과부장관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다 내리세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엇그저께 상임위 때 왜 국정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쭙었고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장관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모두 다 자의적인 판단을 하세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여차여차한 법적 조항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라고 그저께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마구 하시고 내용증명과 관련해서도 출판사와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의 안 하셨습니까? 상의도 안 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해 오셨길래 협조 요청하라는 말씀에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법적 근거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는 집권 여당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金世淵 委員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정진후 위원님.

○김희정 위원 아니, 그게……

○위원장 신학용 아니요, 또 하실 분……

○김희정 위원 김세연 위원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김세연 위원이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신학용 예, 김세연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金世淵 委員 가이드라인이라고 전혀 생각한 바도 없고 뭐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께 지금 이 엄정한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자료제출 요구할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검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논의 자료와 그리고 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장 신학용 예, 정진후 위원님.

○정진후 위원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정말 장관님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특히 3인의 내용증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러셨고 지금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 3인의 내용증명에 대해서 교학사에 협조 요청하겠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를 교육부에서 하셨나요? 만약에 그분들의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이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가상의 경우를 예비해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진후 위원 아니, 가상의 경우가 아니라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준비는 해 났습니다마는 이 건 모든 언론에 공동저자 6인 중의 3인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출판사에 자기 의사를 밝혔다고 교학사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보도도 됐어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적 검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걸 협조를 요청을 합니까?

그리고 실무자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7종 교과서 수정 내용을 봐 가지고 수정 요구하겠다 이런

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관님은, 왜 지금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상 학기가 개시되기 6개월 전에 교과서 주문이 완료돼야 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30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문기간을 축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7종 교과서 모두가 수정을 거부하게 됐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나머지 8종, 전체 8종에 대해서 검정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내년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없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 가면서 나머지 문제가 된다고 하는 7종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협조 요청한 다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교학사, 이게 계약서입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다른 교과서 저자가 2012년 5월에 지금 검정이 완료된 교과서를 공동저자 제작계약을 하면서 출판사하고 했던 계약서예요. 제가 이 계약서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봤어요, 지금. 다 확인을 했는데 보통 출판사는 하나의 계약서를 가지고 특이한 부분을 밑에다 넣고 계약서를 별도로 다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만 보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 3인의 내용이 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과서 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요청해서 가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후 학사 일정 진행이나 교과서 채택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요. 왜 법을 어겨 가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방기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즉시 협조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인 교사들에게라도 요구를 해서 내용증명을 받으세요. 오늘이라도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교과서 검정을 실무진을 통해서 지금 나머지 7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권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장관님, 실무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 내용을 확인하고 나머지 전체 교과서에 대해서 할 정도면 이 교과서 편찬에 대

한 검정을 뭐 하러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까……

○**정진후 위원** 이의신청의 과정이 있고 그 이의신청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수정을 요구하셨으면 그 이의신청 내용, 이것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이 3인의 내용증명 지금 즉시 요청을 하셔야 되고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이걸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정진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한 내용 제가 장관님께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걸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걸 제출 안 해 갖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이게 후에 밝혀지든,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왜 제출을 못 하는지…… 위원장으로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열 위원님.

○**염동열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박홍근 위원님이나 배재정 위원님께서 또 아까 민주당 사초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배재정 위원님께서도 우리 장관께 사과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회의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셔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민주당에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봤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정·보완 또는 왜곡까지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제 발언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배재정 위원님께서 지난 현안 브리핑 때 “일제 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 활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5·16을 쿠데타 혁명으로 미화하고 4·19 혁명은 학생운동으로 폄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재

정 위원님의 좀 적절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원식 위원님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며 제주4·3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학사 어디를 뒤져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께서 대정부질문 때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냐고 질의한 뒤 “뉴라이트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서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허위사실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제316회 교문위 1차 회의 때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여기는 뉴라이트 계열인데 2008년도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10월 유신을 합리화한 대안교과서를 냈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물론 교학사 아까 지적해 주셔서 공부 많이 했고 또 나머지 7종도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8개의 교과서가 다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것은 배재정 위원님이나 우원식 위원님이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김태년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제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이런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인정해 주셔야만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은혜 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염동열 위원 그래서 사과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이 회의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자, 염동열 위원님 그렇게까지 나오면 서로 또 공방이 나오니까요 그 문제는……

○유은혜 위원 기자회견한 걸 이 자리에 와서 또 하십니까?

○위원장 신학용 당과 당의 대변인으로서 한 애

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거기까지 하시면……

○염동열 위원 사실 자체가 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학용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언하는 걸로……

○염동열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그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요 교육부장관께서 지금 계속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보면 11월 중순에는 교과서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따져 보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분석을 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이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입니다. 지금 10월 초순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여기 아주 빠빠한 일정을 다 충족을 시킨다 하더라도 겨우 11월에 선정을 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고 물 타기 하기 위해서 8종을 끌어 들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점들이 11월에 교과서 선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 대한란이 야기된다고 하는 걱정에서 빨리 자료를 제공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증명도 줄 수 없다, 속기록은 물론이거니와 채점포도 줄 수 없다, 교학사 교과서 이외의 7종까지 수정·보완 요구하게 된 법적 근거와 그리고 자료,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자료 제공 못 하겠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검정위원회, 지금 자문위원회이지요? 자문위원회와 교육부 내 TF 이 자료도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국편에서 검정 심사를 할 때 야당의 자료 요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수렴했다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11

월에 국민적인 대혼란이 올 수 있도록 장관이 자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요구했던 교학사 3인의 내용증명 그리고 8종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던 법적 근거와 그리고 조사한 근거 자료들 그리고 이 부분들, 7종의 집필진이 수정·보완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필자 3인이 교학사의 저자에서 빠지겠다고 한 것이 계속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전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11월의 혼란을 막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김상희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국감 증인과 관련해서 간사 보고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관련해서 지금 교사 필자 3인과 검정위원장의 출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국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또 비정규직과 관련한, 그리고 영훈중학교와 관련된 증인들, 모든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국감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국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국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간사, 여야 간사께 촉구드립니다. 이 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간사들이 제대로 된 국감 증인들을 채택하고 증인들을 불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국감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사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해 주셔서 오늘 증으로 이것 채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정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마 자료제출 요구 1만 몇 건 중에 다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에 나름대로 성실히 줄 수 있는 건

다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또 장관께서 그렇게 해 주리라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두 간사님에게 나름대로 진행 상황을 좀 보고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도 갖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재정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염동열 위원님께 당 대당의 문제 가지고 여기서 하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언으로써 양해하셨으니까……

○배재정 위원 아니요, 그래도 기록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배재정 위원 예, 기록을 위해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

○김희정 위원 순서가 저희……

○배재정 위원 아니지요. 아까 김세연 위원님도 제가 말씀을 했더니 신상발언 주셨잖아요.

○위원장 신학용 아니, 그때는 차례가 돼서 그런데요.

○배재정 위원 예, 주십시오.

○위원장 신학용 예,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만 기록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배재정 위원 기록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에서 야당 위원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는 거는, 특히 상임위에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리핑 내용은 당시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채동욱 총장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을 때 그러면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 상황을 아시면서 호도를 하시려고 합니까?

호도하시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상임위에서 여당이 특히 야당 위원들을 그렇게 공격하시는 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앞으로 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 30초만……

-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 염동열 위원** 30초만, 딱 30초만……
- 위원장 신학용**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 김희정 간사님께서……
- 배재정 위원** 계속하시려고요?
- 염동열 위원** 30초만 하겠습니까, 30초만.
- 위원장 신학용** 예, 염동열 위원님.
- 염동열 위원** 제가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이런 문제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회의장에서 설사 이렇게 앞에 게시지만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도 본의가 됐든 또 타의가 됐든 또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상임위 회의장이 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장 표명을 좀 해 달라고 한 것이 제가 공격한 건 아닙니다.
- 그래서 아까 배재정 위원, 우원식 위원, 정청래 의원, 김태년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임위장에서, 바로 이것을 다루는 곳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교과서를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배재정 위원** 예, 저도 30초 하겠습니다. 30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예, 발언 내용을…… 자꾸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
- 배재정 위원** 아니요, 30초 주십시오.
- 위원장 신학용** 배재정 위원님.
- 배재정 위원** 예, 30초 주십시오.
- 위원장 신학용** 배재정 위원님, 배재정 위원님 나중에 기회 드릴게요.
- 배재정 위원** 아니요, 30초 주십시오.
- 위원장 신학용** 자꾸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 현영희 위원** 그만합시다.
- 배재정 위원** 지금 하게 해 주십시오.
- 염동열 위원** 나 20초 썼어요.
- 배재정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20초도 좋습니다.
-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배재정 위원님!
- 배재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기자회견하시면서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외부 세력과 연계하여 움직였다. 도대체 누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증거 자료 내놓으십시오. 무슨 시나리오가 있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애기한 것에 대해서 시나리오 쓰고 연출했는지, 그러면 그거를 증빙을 먼저 하시는 게 순서고요.

특히 그다음 문장, 박홍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사초 은폐에 앞장섰던 민주당’ 이렇게 왜 표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인 공방을 할 수 있죠, 물론.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걸 이렇게 상임위장으로 끌고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예, 두 분의 의사 내용 충분히 전달됐고요. 왜 이러신지도 다 나와 있고, 양당 대변인의 또는 양당의 입장을 기자회견한 내용을 더 이상 상대방 공격으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희정 간사님 차례입니다.

○**김희정 위원** 새누리당 김희정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상당수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국회가 함께 편향되고 부실된 교과서를 수정·보완해서 교과서 정상화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 결의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과서에 대한 왜곡된 공격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잣대로 8개 교과서를 함께 심사해서 국민들에게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신뢰를 심어 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제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를 좀,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제가 어제 결산 심사를 하면서 2012년도에는 감수예산이 빠졌고 2013년도에는 감수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쓰여지지 못한 거에 대한 경과를 교육부에다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의 감수예산은 당시 18대 야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빠지게 되었고 또 올해 편성된 감수예산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문위원님들 중의 상당수가 그 감수예산을 쓰지 말 것을 촉구하는,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뉘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인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오히려 감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 이렇게 혼돈되지 않고 정확하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입장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성명서에 대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부득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표현했던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사초 폐기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역사 문제 앞에 당당하고 싶다면 자신들의 허위·비방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좌편향·부실 교과서 수정·보완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지금 몇 분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냐 하면, 어쨌든 민주당 대선 후보께서 정치 생명을 건다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개인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초 폐기의 문제가 바로 역사교과서와 역사관 측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유은혜 위원 사실관계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김희정 위원 특히 왜 제가 민주당을 이렇게 언급을 했냐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누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박홍근 위원 제가 질문을 한 적 없고요.

○김희정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민주당에……

○유기흥 위원 김희정 간사님, 기자회견문에 그

렇게 하셨어도 안 되고 그 얘기를 또 지금 여기서……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 제 발언 시간 보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삭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기록원에 가지조차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은혜 위원 아직 그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기흥 위원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뭐가 밝혀진 게 있어요?

○유은혜 위원 기정사실화하지 마십시오.

○김희정 위원 이미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유은혜 위원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유기흥 위원 아니, 교문위에서 여야 상생하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요?

○김희정 위원 먼저 민주당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새누리당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질문이 아닙니다.

○박홍근 위원 질문이 아니라 항의죠.

○김희정 위원 발언 기회 보장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배재정 위원 질문을 하다니…… 나는 질문한 거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유은혜 위원 일방적 정치적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자, 김희정 위원님,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다 양당 대변인을 통해서 또는 전체 이름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조차 상대방 비방용으로 계속 거론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이고……

○김희정 위원 예, 민주당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유은혜 위원 누가 질의를 했습니까, 이거를?

사과하라고 했던 거지 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학용** 정세균 대표님!

○**김희정 위원** 아니, 아직 제 발언 시간 끝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굴욕 회담을 은폐하기 위한 사초 폐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 왜곡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음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왜곡되지 않고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아주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유기홍 위원**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태도예요, 그게?

○**위원장 신학용**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이렇게 격앙되면 정말 사회 보기가 힘들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민망합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세균 대표님 발언이 있지만 야당 간사로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조금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학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조금 진정하시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할 말씀 다 하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장하듯이 '왜 내 얘기할 때 상대방에서 그러느냐' 또 '내 얘기할 때는 왜 그쪽에서 그러느냐' 그러시니까 항상 발언권을 얻어서 가지고, 그 발언에 귀를 기울였다가 꼭 그다음 차례를 얻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일단 기관 증인은 가결을 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유기홍 위원** 일단 제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면서 약속한 우리 유기홍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우선 다른 여당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여당 위원님들이 그 직전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고 또 그 내용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초 운운하는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을 김희정 간사께서 여야가 상생해서 공동으로 뭔가 하자고 제안을 하는 그 발언 속에서 사초 얘기를 하시는……

우선 그 사건 자체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고 지금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인 것을 마치 무엇인가 다 드러난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시다만 증인 문제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저도 17대 거쳐서 지금 제가 간사만 4년째 하고 있는데, 여당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가능한 회의를 하자고 하고, 그리고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자고 해야 될 여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들은 가능하면 채택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상임위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사초 발언은 저는 이 상임위를 깨자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논거들을 가지고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무슨 차떼기 정당이 라거나 기초연금 위반한 사기 정당, 거짓말 정당 이렇게 전제하고 기자회견한 적 없습니다.

사실 자체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의도가, 그리고 증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한 이유가 저는 도대체 새누리당이 이 상임위를 그리고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정말 우리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타를 넘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어떠한 핵심적인 자료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내용증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사실상 그 3인의 내용증명이 검정 취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자료도 주

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대로 새누리당이 그 교사 필자 3인의 참고인 소환까지도 거부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갖고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자료도 주지 않고, 또 증인·참고인은 여당이 반대해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가진 것은, 교학사 교과서가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나머지 7종도 문제가 있어서 다 같이 수정작업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 무렵에 저희 야당 교문위원들이 직접 장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발언을 듣고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보고서도 없고 회의를 했던 회의록도 없고 실무자들의 구두보고, “다른 7종 교과서도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전례가 없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런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야당 주장을 무시하고 어떤 자료도 줄 수 없다고 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국정감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스러운 것은 사초 발언 관련해서는 우리 김희정 간사님, 정말 양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사과를 하셔야 되고, 우리 배재정 대변인께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한 것까지 지적하시는 분들이 왜 감수 비용은 작년에 여야 합의로 1억 8000만 원 합의했고 그리고 지난번 2일 날 상임위에서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교육부의 법령이나 법령 정비나 이런 정비가 안 돼서 불용했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마치 야당이 감수 비용을 쓰지 못하게 한 것처럼, 감수 비용을 깎은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아마 김희정 간사께서 작년 국정감사 그 기간에 우리 교과위에 안 계셔서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아까 기자회견 석상에서도 또 그런 잘못된 사실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사초 발언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야가 함께 뭔가를 결의하자고 하시는 얘기 끝에 사초 발언 운운

했던 것은 정말 이 상임위를 깨자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徐相箕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신학용 서상기 위원님, 김희정 간사님께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徐相箕 委員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한 박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럼 계속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학용 서상기 위원님.

○徐相箕 委員 양쪽에서 갑자기 또 사초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초는 제 영역입니다. 남의 밥그릇 뺏지 마시고 사초 얘기는 덮어두고 교과위에 관련된 얘기만 하도록 하십시오, 양쪽 다.

○유은혜 위원 양쪽에서 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徐相箕 委員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이 국회 의정활동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여야 위원님 선수에 관계없이 아마 다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들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여야가 논쟁만 되풀이하고 또 정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건 안 보시건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한 분 한 분의 그야말로 의정활동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정말 조금 한 발씩만 물러서면 얼마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끼어들다든지 다른 사람 발언할 때 야유성 발언을 한다든지 또 사용해서는 안 될 또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점점 더 이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때그때 좀 바로잡아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정말 중요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증인채택 문제 같은 것은 다 잘 아

시다시피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이후로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혹은 또 그 이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고 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예의 또 기본적인 룰을 지켜 가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점은 어느 누가 잘못이다, 잘했다를 떠나서 양쪽 다가 유념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지금 오전 내내 진행되는 여야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쪽에 있는 야당 위원들이나 교육부 관계자나 우리 역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어떻든 직책이 뭐든 간에 이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고 물 타기를 해 보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역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일제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알게 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 이것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요현안 업무보고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장관님이 이런 식으로 교육부를 지휘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증명과 관련해서 보여 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관련되는 교사, 장세욱 선생님·김남수 선생님, 그리고 또 최희원 선생님을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오시게 해서 직접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몇 번 더 했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8조3항에 보면 저작자의 성명 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분들이 수정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내 이름을 빼 달라'

고 하면 바로 이 조항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나오시게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나오지 않게 하자 이렇게 용을 쓸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증인 신청을 제가 한 분들이 또 있어요. 교과서에 사진이 잘못 실려 있는 부분인데 사진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누구냐 하면 학도의용군 사진이에요. 학도의용군 이우근 선생, 포항전투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 6·25전사에서 꼭 거론되는 분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도 그분 편지가 있고 포항에도 그분 편지비가 있어요. 어느 교과서에나 꼭 다루는 분인데 이분 사진 잘못 썼어요. 1950년 8월 11일 날 여름에 교복 입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을 군복 입은 51년도 군인 사진을 떡 갖다 올려놓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학도의용군 단체에서도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교과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개하시거든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과서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요. 예의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분들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필요한 분들은 여야가 꼭 합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 꼭 나오시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이학재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또?

○**이학재 위원** 김희정 간사님께……

○**김희정 위원** 먼저 국정감사 증인과 관련해서 야당 간사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간사님이 저랑 협상을 하시면서 협상 중간에 잘못된 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저희는 두 시간여 만나서 심도 깊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어떤 항목에 어떤 증인과 참고인이 있으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를 본 부분 또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마치 아무 증인과 참고인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나머지 위원님들께 보고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랑 어저께 합의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역사교과서 관련되어서는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마친 후 우리가 추후 국정감사에서 더 다루는 데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협상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현안보고도 받지 않은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을 매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오늘 회의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자신의 주장만 하면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여야가 추천하는 객관적인 역사학자들을 똑같은 수로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까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사교과서에 관련되어서도 아까 유은혜 위원님이 필요하면 다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특정 교과서에 대해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해서 특정 교과서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대표 집필자를 모두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같은 잣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보자라는 나름대로의 제안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미 협상이 깨졌다라는 방식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는 더 이상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여야 간사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당 쪽에 그런 식으로 호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초에 대해서도 제가 세 분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가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 세 분이 발언하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답을 드린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수와 관련되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제안을 하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입장 정리를 해서 저희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서로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민주당 위원님들 안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감수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는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교육부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인 2013년도 1월 21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교문위 소속 두 분 위원님이 한 분은 당 회의에서, 한 분은 바로 여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감수를 '이중검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감수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래 놓고 이제 왜 안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어쨌든 모든 교과서에 대해서 충실히 다뤄 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정말 서로의 발언 시간을 보장하면서 귀를 기울여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못된 지적이 있다면 또 다음 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 김희정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역사교과서 문제의 중요성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여야를 떠나서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왜 처음에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7종 교과서는 그동안 써 왔던 교과서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검정 합격된 교학사 교과서에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7종을 좌편향으로 보시고 또 거기서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는 주장

에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공박하고 물 타기 하는 식으로, 여당 위원들께서 왜 교학사 교과서를 이렇게 감싸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3인의 내용증명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교육부에서 하지 않고 또 그분들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자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관련된 요구를 하다가 사실은 아까 증인 문제까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아니, 상식적으로 교육부가 저렇게 일체의 자료도 주지 않고 증인·참고인까지 만약에 여당의 반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가 협상 결렬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협상 진행과정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였겠지만 제가 누구 개인까지 다 거론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어떤 부분은 지금 긍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정말 어렵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권희영·이명희 교수와 교사 필자들 부르자고 하는데 “왜 한 출판사 이렇게 무더기로 부르냐?” 다른 사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의 집필 부분에서 너무도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러야 하고 이 세 사람은 교학사 필자를 모두 부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7종 다 부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부르시다, 대표를 부르든 아니면 그 중에 몇 사람씩을 부르든. 그런데 ‘권희영·이명희 두 명과 나머지 두 명 외에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어제까지의 얘기였고 제가 그것은 여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회의 시작부터, 올라오시기 전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초 발언을 하고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이 오늘 회의를 어떻게, 상임위를 깨고 국정감사를 정말 증인 없이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그런 느

낌을 받으셔서 증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학도의용군 회장께서 본인이 증인으로 직접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가치를 위해서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아직도 사실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증인 문제에서, 그러나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교육부가 지금처럼 자료 일체 주지 않고 그리고 여당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참고인 요청에 대해서 지금의 입장을 견지하신다면 이 국정감사를 도대체 뭘 갖고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그리고 장관께도 요청드리겠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의 답변 태도, 나머지 7종 수정에 착수하게 된 과정이, ‘실무자들의 구두보고 가지고 했다’ 세상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 교과용도서 그 조항, 검정 취소 사유가 되는 성명 표지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 내용증명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보기에 법률 검토까지 이미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법률 검토인데 설사 그것이 잘못됐든 잘못됐든 그런 검토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채점표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내용 주십시오. 명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무적으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국정감사 때 대안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든 잘못됐든?

그리고 2일 날 저뿐만이 아니라 여당 위원께서도 내용증명 자료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가 같이 이렇게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교학사 측에 협조 요청조차 안 했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와서 그런 답변을 하는 데 대해서는 장관의 사과 요구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나머지 7종도 부실하다고 하는 검토가 있었으면 그것이 보고서든 회의록이든

아까 김태년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 주시고 또 검정 취소 사유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검토가 있었다면 내용증명과 함께 주실 것을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사이에 견해 다른 것 없습니다. 지난번 장관이 ‘법령 정비가 안 돼서 그 감수비용을 못 썼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 감수가 안 돼서 부실할 수 있다는 제기를 하셨던 것이지 1억 8000만 원 작년에 여야 합의로 다 통과시켰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개인이 상임위도 아니고 정당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집행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교육부에 말씀드리면서 저는, 국정감사의 증인 신청 문제가 오늘 안 되면 14일 날 국정감사가 제대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사 협의가 지금 난항에 부딪혔다면 우리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이 자리에서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 간사 간에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을 그리고 오늘을 넘기면, 제가 그렇게 예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오늘까지 이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14일 날 국정감사는 증인 없는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굉장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있다,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증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혜도 이 자리에서 좀 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학용 제가…… 우선 증인 문제는 오늘이 데드라인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여야 간사님들에게 당부하는데 어쨌든 협상을 지루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시고 오늘 늦게까지라도 꼭 잘 대화와 토론으로써 서로 양보할 것은 하시고 해서 결론을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 문제는 장관님께서 이때까지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나온 것을 참작해서 가지고 어차피 제출할 거고 혹은 또 공표될 거고 다 알려질 거라면 이번 기회에 빨리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수비용 문제는 두 분이

명확히 얘기하셨네요.

김희정 간사님은 그것이 이중검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설명한 거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또 유기홍 간사님, 야당 측에서는 장관이 분명히 행정절절차상의 무슨 문제로 못 썼다라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을 안 해 주셨으면, 해명된 것으로 보고 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예, 김태년 위원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당 위원님들께서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주로 교학사 교과서 말고 나머지 7종 교과서 가지고 어떤 판단들을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는 이게 무슨 까도 까도 계속 오류가 나와요. 마치 ‘양과 교과서’ 같습니다. 아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 교학사 교과서 하나만 갖고 오류를 지적해도 하루에 열 가지 이상씩, 위원 각각 열 가지 이상씩 지적할 정도로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여서 이렇게 온 나라가 들끓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교육부장관께서 이 자료와 관련한 또 회의와 관련한 답변들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그때 9월 11일 날 ‘8종 교과서 수정·보완 지시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과서 관련 규정 30조(주문)에 보면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 도서의 발행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이 결정이 지금 이 규정을, 결과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6개월 전까지 학교장은 주문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전까지 주문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장관과 교육부에서 했던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일선 학교장들을 다 범법자로 만드는 그 결정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범법자를 만드는, 장관도 물론 문제지만 일선 학교 죄 없는 교장 선생님들을 다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한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장관께서 ‘근거자료도 없이 회의를 했다’ ‘회의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교육부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온 언론이 들끓었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근거자료 하나 없이 회의를 하고 회의록 하나 없이 회의를 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을 넘어서서 이것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하여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그러면 좋아요. 회의록 없었다 칩시다. 그러면 최초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실무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했던 실무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던 보고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회의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누구예요? 심은석 실장입니까? 담당실장이 심은석 실장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심은석 실장 와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내가 의사진행발언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그 문제는요……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뭘 갖고 보고하셨어요? 그냥 머릿속에 다 그러 가지고 보고하셨습니까? 진짜로 회의록 없이 보고하셨습니까? 회의록 없었습니까?

○**교육부교육정책실장 심은석** 예, 회의록 없었습니다. 구두로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몇 가지 다른 교과서 살펴본 결과……

○**김태년 위원** 머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교육부교육정책실장 심은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언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어느 학자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전부다 수정·보완을 지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심은석 실장님 머리 그렇게 좋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김태년 위원**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지금 장관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가 동네 구멍가게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은 중요한 행정 문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장들을 결과적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행정행위를 해놓고 저렇게 무책임한 ‘회의를 했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신학용** 의사진행발언으로……

○**김태년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또 더 하시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이걸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자료요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국회, 이 공공기관이 정부 공공기관에 법령에 근거해서 매우 공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공적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법령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치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관례가 그랬다거나 통상적으로 그랬다거나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끼리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 이 문제, 그러니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법령에 근거해서 제출과 미제출 여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 간사님께 하나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

관으로서 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국정감사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이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시고 또 합의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증인을 빼는 문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증인과 참고인을 뺄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최소화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 이게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다 이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합의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는 여야 간사님들이 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두 여야 간사에게 김태년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조금 전에 6개월 전에 교과서 지정을 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법령 위반으로 될 건데 그것은 검토하시고 하신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문제는 사실은 지금 법령이 현실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게 옛날에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결정할 때의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 검정이 끝나면 이번의 국사 교과서 문제하고 관련 없이도 다른 교과서도 10월 중에서 전부 채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8월 말까지 검정을 마치면 그것을 학교에 보내서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사실은 법령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사문화된 그런 규정이었다 이거지요, 이때까지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한 4개월 이전이나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염동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염동열 위원** 예, 저는 두 분 간사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사 역할이 아마 여야 간의 쟁점사항이나 여러 가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간사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고 또 두 간사님을 통해서 쟁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여야 간사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지, 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언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야당 간사님도 발언을 야당 위원님 중에 거의 한 5분의 2 정도를 하셨고 또 우리 여당의 간사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간사님들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설사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오늘 회의 장소에서는 적어도 여야가 원활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유도하거나 또 상대방을 좀 다독거리거나 또 여러 가지 백 미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간사 회의가 보다 더 진실되게,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붙이자고 한다면 교학사 교과서, 문제 있습니다.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셔서 교학사에서 나온 책들 읽어 보니까 수정할데, 오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머지 천재교육을 포함한 일곱 가지의 교과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교학사가 858건, 금성출판사가 767건, 리베르스쿨이 867건, 미래엔이 352건, 비상교육이 797건, 두산동아가 507건, 지학사가 445건, 천재교육이 393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교학사가 됐든 천재교육을 포함한 7종이 됐든 모두가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합심을 해서 한 번쯤은 검증은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부를 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요구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야당 간사님이나 여당 간사님이 양

측의 증인들을 우리가 좀 더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이후로는 간사님들은 좀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기회를 주셔서 보다 이 국감이나 상임위가 심층적으로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13년도 국정감사 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야당 간사님, 여당 간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어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서로 여야 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오전을 다 허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호 양해해 주시는, ‘저쪽 주장은 이렇구나’ 또 ‘이쪽 주장은 이렇구나’ 그리고 반박할 것 있으면 또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법률안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위원장 신학용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학용 예, 이것만 하고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공청회 대상 법률안에서 일부 법률안을 선정하여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교육부 소관 법

률안 8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 9건, 문화재청 소관 법안 1건 등 총 18건의 법률안이 공청회 생략 의결 대상 법안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거나 찬반의견 대립 소지가 낮아 공청회 실시 필요성이 적은 법안 등을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면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부터 남경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리에 있지 못했는데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오전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에 허위사실 유포 이게 이런 것을 두고 한 이야기인가 본데 저는 왜 이렇게 사실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서 교학사 교과서를 이렇게 비호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것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발간했던 대안교과서에서 그들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런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적으로 집필한 한국사 교과서가 검증이 통과돼 이런 인식이 그대로 교과서에 실릴 경우 학생들은 독재시대 민주화 역사에 관련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안교과서에 이미 그런 친일독재 미화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그렇게 쓴 것이 드러났는데 그분들이 주도한 교학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렸다면 그건 문제다 이런 얘기한 건

데 뭐가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염동열 위원님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동료 위원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고 일본에 의해서 아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수난을 받았는데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최근에 근대화 식민지론을 비롯한 친일사관을 가진 한 교수 말이지요, 교학사 친일·독재 찬양 역사교과서의 주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강연을 들으면서 5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통령 최측근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한 역사교과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25일에도 친일파 윤치호·이광수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로 칭했던 뉴라이트 계열의 허동연 교수를 강연에서 또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새누리당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인 독립운동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민족의 정통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새누리당이 친일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잘못된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꾸짖어야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바리케이드 치고 말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동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염동열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위원장 신학용 예, 염동열 위원님.

○염동열 위원 우원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전에 아마 계셨으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해가 훨씬 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속기록을 제가 뽑아 달라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 배재정 위원님·우원식 위원님·정청래 의원님·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또

최고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학사의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이것의 진위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고 가는 것이 회의하기 전에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왜곡했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우원식 위원님께서 오전에 안 계셔서 혹시 전해 들어서 오해가 된다고 한다면 속기록을 보시면 ‘그 진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교과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왜곡되거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국감 내내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룰 텐데 적어도 이것을 다루는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만큼은 그 진위에 대해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장을 좀 밝혀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곡이다 또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염동열 위원님 말씀뿐 아니라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오전에 낸 성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가 발행되기도 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허위비방한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해야 된다. 잘 짜진 각본에 따라 외부세력과 연계해서 움직인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허위사실입니까?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염동열 위원님이 그런 명시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성명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어져서 새누리당이 저의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염동열 위원 아니, 그것을 연관시켜서 말한 게 아니고요.

○우원식 위원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김태년 위원 염 위원님, 사과하라 아까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발언 하실 때. 그러니까 그쯤 하세요.

○우원식 위원 모 최고위원도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서 하는구나. 내가 말한 거라도 좀 잘 보지’ 속으로 그리고 말했는데 상임위원회까지 와 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니깐 이거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제가 언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그랬어요? 좀 제대로 알고들 하세요.

○**위원장 신학용**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우원식 위원님과 염동열 위원님 각자 신상발언, 그에 대한 대응발언 하셨는데 정확한 속기록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두 분의 뜻은 지금 다 해명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거기에 또 다른 클래리파이(clarify)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金世淵 委員** 방금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오전 회의에 안 계셨던 관계로 저희 오전 회의 내용에 대해서 다소간에 오해가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려 보자면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잘못된 사실을 그동안 주장을 해 오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 동료 상임위원 간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 같아서 최대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브리핑 형태의 논평이라든지 또 최고위원회 회의의 공개부 발언이라든지 또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의 발언들이 근거가 되었고, 사실 국회에서의 발언은 저희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지만 당내의 어떤 상황에서의 발언은 저희도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도가 된, 활자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말씀을 듣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주장 대 주장보다는 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검증을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각자 지금 해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그걸 갖고 저 나름대로 다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5. 현안보고

가. 국사 교과서에 관한 사항

(16시06분)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사 교과서에 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부 서남수 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현안보고는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 제출된 서류로 대체하지 않아요.

○**우원식 위원** 다 아는데요, 뭐. 바로 질의합니다.

○**김태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신학용** 간단히 보고받겠습니다.

장관님, 건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교육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경과 주요 경과,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한국사 교과서 주요 문제점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오류 사례 그리고 향후 수정·보완 추진 일정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지난 8월 12일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 및 역사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8월 27일에는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에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수능필수화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를 줄이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진행돼 온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년 1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심

사기관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역사교과서 검정심사업무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 8월 26일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1월 검정심사본 접수를 시작으로 약 8개월간의 검정심사업무 후 지난 8월 30일 최종 합격 공고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8종 합격본 발표 이후 4개 역사단체에서 특정 교과서 내 오류사항을 지적하고 일부 교원단체 및 사회단체와 언론에서는 친일 왜곡 부실교과서라는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정쟁 중단 촉구 및 검정통과본에 대한 비판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과서 정책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지난 9월 11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한국사 교과서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교과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 오류, 집필기준 미준수, 연대·날짜 표기 오류, 인명 및 지명 표기 오류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분단과 6·25 전쟁 북한 책임 축소 서술, 특정 인물 미화 서술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예비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오류 사례의 예시를 4쪽에 별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8종의 교과서에는 예시된 오류 사례 중 최소한도 1개 이상의 오류를 각각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부의 향후 수정·보완 추진 절차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내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집중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검토를 거쳐 10월 중순

에는 수정권고 사항을 출판사에 전달함으로써 10월 하순까지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순까지 교과서 전시본을 학교에 공급하고 학교에서는 11월 말까지 교과서 선정 및 주문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 교과서 인쇄를 거쳐 신학기 시작 전까지 교과서 공급을 완료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교 한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위원 장관님께 곧장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곧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작자 세 분이, 공동저자 세 분이 내용증명을 출판사에 보냈고 참여하지 않겠다, 이름을 빼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좀……

○정진후 위원 사실 확인은 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간접적으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진후 위원 사실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거기서 빠지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진후 위원 아니, 이름을 빼 달라고 했다는 것은 공동저자의 명에서 삭제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정·보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진후 위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정명

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정진후 위원**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수정명령보다는……

○**정진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것은 수정권고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출판사하고……

○**정진후 위원** 아니, 수정권고라 하더라도 지금 보내시는 것은 법률적으로 수정명령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법률적으로……

○**정진후 위원** 그걸 따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번에는 법령에 나와 있는 수정명령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진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요.

검정 출원된 내용과, 수정을 요구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다른 분에 의해서도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앞에 있었던 그런 판례에 의하면 출판사가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살펴보셨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건 판례에 따라서……

○**정진후 위원** 아니, 판례가 아니라 이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출판사와 저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계약의 내용 중에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신 대로 ‘대표나 혹은 출판사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것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진후 위원** 왜, 그 정도를 확인하지 않으셨으면 사실은 장관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정요구를 하는 것은 출판사에 대해서 수정을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판사와 저자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정진후 위원** 장관님, 제가 이 법률적 자문을 변호사님들한테 구했어. 한결같이 온 게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고, 그 내용 중의 일부를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경우 특히 교과서의 부분은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게 아니라 주로 단원별로 다 대별을 해서 집필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저작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것 보여 드렸습시다마는 이게 교학사에서, 아마 한국사 교과서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똑같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검정 출원 전에, 다시 말해서 교과서를 완성본으로 해서 납품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공동저자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한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표를 선정해서 대표가 계약 체결을 하고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왜 해당 조항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조 공동저작권자’ 이렇게 해서 3항을 보면 “검정 출원 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작자 중 일부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 이게 3항이고 4항은 ‘검정 출원 전에 공동저자 간의 의견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나 빠지겠다고 했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판사나 다른 누군가가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왜 이런 조항이 있지요?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미 이것은 출원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 출원을 이미 했어요. 했지요, 검정 출원을?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정진후 위원** 검정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서 어디에도 검정 출원 이후에 수정이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른 대표가 뭘 한다,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공동저자 중에 세 분이 이름을 빼 달라 했던 것은 자기가 집필했던 부분을 사실상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는 세 분이 집필한 부분을 자동적으로 삭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검정 출원된, 검정 출원되어서 지금까지 검정을 받았던 교학사판 교과서는 세 단원, 세 분이 집필한 부분이 빠진 상태로 현재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완성분을 제출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격이 되는 것이고 장관님은 거기에 의해서 곧장 검정 취소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8조에 의해서 취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유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계약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으셨고 법률적 검토도 않으셨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제가 지적했던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내용증명으로 보낸 부분들의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수정권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검정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저희가 수정권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권고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진후 위원 아니, 왜 직접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보다 앞서서 먼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여건의 불충분 아닙니까? 완성분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글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내용증명의 내용이 다르다고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정진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 그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출판사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을 줌……

○정진후 위원 아니,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그 내용은 집필자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밝힐 수가 없다’ ‘그래도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내용은 없고 수정·보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진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정진후 위원 이 교과서 검정에 중요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는데 장관님이 출판사에 확인해서 그런 저런 내용이다라고만 확인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무엇에 근거해서 출판사의 논리가 정당한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거로?

지금 당장 하셔서 그것을 출판사에 요구를 하시고 본질의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정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오늘 아침부터 역사교과서 문제로 귀한 시간이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으면서 갔다라는 것에 참으로 정말 침통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오늘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건데 이렇게 지금에 와서야 불거지고 어떤 특정한 교과서가 그것만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며 또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작, 사실 저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가 다른 교과서하고 달라서 융통성이 있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과 같은 지침서로서 누구나가 다

똑같이 역사의식을 갖고 가야 되는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특정 교과서 하나를 교학사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서, 적절치 않지만 비상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하고 교학사 교재하고 비교해서 교학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교학사 247페이지의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비상교육에서 볼 때는 꼭 전쟁 막바지에만 일시적으로 위안부가 동원된 것 같이 표현되는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교학사가 1919년 9월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모 학자는 그것을 1919년 9월로 하고 싶었나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 290페이지에도 1919년 9월에 임시정부가 출범하였다고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애국가 관련해서 애국가가 그러니까…… ‘애국가’와 ‘코리아 환상곡’을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하셨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작곡한 것처럼 표현한 것들, 실질적으로 그것이 따로따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교학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안익태가 ‘애국가’ ‘코리아환상곡’ 등을 작곡하였다”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도 교학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교학사 311페이지에 평터화이를 중공 군사령관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1952년도 1·4 후퇴 전쟁 당시라면 그 당시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중공군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금의 어떤 시대를 표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비상교육에서도 역시 똑같은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교학사가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것들을 다 똑같이 인식하

면서도 유난히 일곱 가지 교과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이번에 새롭게 교학사 교과서가 다시 검정에 통과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장관님께서 이렇게 틀린 부분들을 어떤 지침을 가지고 수정하실 생각이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오류가 여러 교과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부터 역사교육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하기 이전에 그런 오류들을 전부 바로잡아서 시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에리사 위원** 예,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시간은 없고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10월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일부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에리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제가 있는 모든 교과서 8개가 다 취소돼야 되는, 어떤 것은 지금 됐기 때문에 취소가 돼야 되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일곱 가지 교과서는 그냥 써도 괜찮다는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한테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써 왔다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지금 현재 그 8종 교과서 모두가 정상적으로 검정 과정을 거쳐서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오류를 발견을 했지만 그것이 검정을 취소할 만한 그런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바로잡아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리고 사실 감수가 2011년부터 안 되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육부가 이런 많은 교과서들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감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감수하는 과정이 2011년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그때부터 이

미 자초된 게 아닌가,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교육부가 너무 의식해서 소신껏 감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칙적인 것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부분에서 저도 이번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실제로 아직까지 감수했더라도 감수를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서 감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감정을 하면서는 감수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그것도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게 된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과서 검정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이 감수가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에리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영희 위원** 질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이제 겨우 마이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는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진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은 더더구나 정치적인 이념에서 중립에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고교 교과서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데는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교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논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역사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보면

‘북한 정권의 수립과 북한의 경제’라고 해서 127 쪽에서 128쪽에 걸쳐서 나오는데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에는 남한과는 달리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고” 또 “남북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잘못 기술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현 정부만 국가로 인정을 하고 북한은 지금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정권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주민’ 이리저 ‘북한국민’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장관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 이것은 5학년 2학기 국사, 역사책입니다.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다음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초등학교 학생들,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역사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역사책을 제가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왔습니다.

‘국사시간에 세계사 공부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느냐 하면 “6·25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이 한국에게 준 농산물은 자기 나라에서 먹고 남은 농산물이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준 농산물을 한국 사람에게 판매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미국의 무기를 구입했다. 미국의 무기회사가 이익을 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전후 세대로서 자라고 또 미국의 원조를 받고 분유를 짜서 먹고 그다음에 옥수수가루로 죽을 끓여 먹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속에 보면 내용 중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대로 잘 안 보이는데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진 미국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으로서는 이제야말로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곱씹었을 것이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북한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핵무기 개발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 책 속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 교과서 검정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책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다음, '4·19 혁명'이라는 '한겨레틴틴'의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6·25 전쟁이 끝난 지 3년 후에 한국 농촌을 죽여서 미국 경제를 살리는 꼴이었다"라고 이 책자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수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자료를 보시면 만화에도 이런 삽화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삽화 내용에, '4·19'라는 틴틴 여기서 나온 책자 책 표지에 보면 '군인아저씨들 모두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마라'라고 기입하여 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물을 형상화하고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옆에 보시면 '이야기 한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야기 한국사' 이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속 내용에 '부산시교육청 추천도서'라고 기입해서 교육 당국이 추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고 또 '한국사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책은 '서울시교육청 추천도서'라고 2009년에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교 교과서에도, 이 문제는 논쟁을 지금 양당들이 하도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릴 때 교육에서부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장관님께 좀 인식을 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사교과서 검정 문제 해결만으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의 주요한 흐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도 결론적으로 제가 말했듯이 국사교과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1종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현영희 위원 사실상 이 어린이 교양서적의 경우는 교육부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학생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교

육청에서 이런 책들을 추천도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2011년도에 이런 책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산교육청에서 추천한 도서는 11년에는 금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3년에는 27쇄까지 나와서…… 23쇄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국어교과서도,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부터 지금 현재 중학·고교의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문화사가 전부 검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역사는 팩트만을, 사실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판단은 국민들이 각자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더구나 교육에서 우리가 이념적인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프랑스 국민이라 하면 프랑스 말을 써야 되고 프랑스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념을 같이 가진 사람만이 프랑스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현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세요.

○이학재 위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편향이든 좌편향이든 편향은 역사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종의 교과서 중에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좌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이승만·반박정희·반미·친북, 이런 기조로 역사를 호도하고 있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

사관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 360페이지에 보면 ‘현대사 연표로 미리 보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연표에 의하면 사진의 시작이 여운형에서 시작해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악수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을 다룬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가장 크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 표에 의하면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하고 동일하게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사진 하나 그럴듯하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구겨진 모자 같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사진조차도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왕 사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백만의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겨누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독재자 김정일에 대해서는 사진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오해될 만하게 아주 크고 인상 좋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선서하는 그것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좋은 장면으로 해서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노벨평화상을 타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큼지막한 사진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것은 누가 봐도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교과서, 역사서는 분명 사실에 입각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어린이용 역사책 ‘국사시간에 세계사 공부하기’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대전으로 도망을 갔다. 서울시민들은 그제야 피난길에 올라 한강을 건너려고 했다. 이때 남한의 국군이 갑자기 한강 다리를 폭파했다. 이번에도 국군은

평양에서 철수하면서 대동강 다리를 폭파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또다시 끊어진 다리를 건너야 했다.” 이승만과 우리 국군을 아주 비열하게 묘사한 반면에 침략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202쪽을 보면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이 간 길을 뒤따랐다. 중국은 제 앞가림하기만도 바빴다. 이때 북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온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진 미국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핵무기였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을 정당화하고 수백만 북한 주민을…… 야기시킨 김정일 정권을 합리화해 주는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역사 인식과 역사관을 갖고 자라날까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여쭙 보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학계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장님으로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지금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미국 유학 중에 한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국 국사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40여 년 동안 교단에서 동양사와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특히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9년 동안 일본사와 중국사를 가르치면서 교재들을 많이 봤는데 대체로 상당히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는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미국에서 쓰이는 교과서들에 비해서 질이 낮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국사 교육이 커다란 위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한국의 역사학계에 실력이 있는 그리고 양심 있는 아주 탄탄한 역사학자, 특히 현대사를

다루는 역사학자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국사학자들이 많지만 현대사를 다룬 국사학자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어느 통계에 보게 되면 한국에서 현대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8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에서…… 여러 교과서를 제가 가볍게 훑어 봤는데 기술이 상당히 부정확하고 편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는데, 저는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근본 동기가 한국의 현대사 연구를 진작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자면 여러 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현대사를 진짜 철저히 공부한 학자들을 배출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교단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고 교과서를 쓰고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자료 정리를 하는 기구가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줘야 돼요. 한국의 역사학이 지금 현대사 분야에서 극히 후진한 이유는 현대사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가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사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없으면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담당하는 기구가 국사편찬위원회이고 이름 그대로 국사를 편찬하는 기구니까 제가 그 일을 맡으면 참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갑자기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를 검정하고 혹은 심지어 제작까지도 하는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인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혜자 위원 시간이 안 지났습니까?

○우원식 위원 시간이 너무 가네요.

○박혜자 위원 아니, 시간이 안 지났습니까? 지금 취임사입니까?

○이학재 위원 제가 질문했으니까 말씀을……

○위원장 신학용 5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이 드렸으니까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한국 역사를 가지고 최소한도 40여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한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조금만 더 들어 주

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은혜 위원 우리도 많이 했어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우원식 위원 우리도 연구 많이 했다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압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하루 하는데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짧게 얘기해야지.

○위원장 신학용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 위원 마무리하실 기회를……

○우원식 위원 요건만 간단히 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하여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현대사 자료를 철저히 잘 정리하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새누리당 김희정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좀 전에 여야가 현안보고를 받고 예정된 대로 질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야당 위원님들은 양해 말씀 한마디도 없이 전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래 놓고서 마치 새누리당이 국회를 정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식의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아니, 기자회견장에 가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정회를 하시고 그 시간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시든지 해야지 여당 위원들이 기껏 지금까지 준비해서 다른 교과서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어떤 양해도 없이 야당 위원들이 전원 이석을 해 놓고서 오히려 국회를 여당이 파행하려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당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야당이 충분히 했던 내용을 다시 재탕 삼탕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은 그동안 한 달여 간에 착실히 관계 학자들과 위원들끼리 공부를 한 것을 오늘 처음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실하게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야당이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야당 간사님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 더군다나 제가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마당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야 협상 파토’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이미 저희 협상이 끝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야당 위원님께서 계속 심사를 하자라고 했던 항목까지 끼워서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서로 신의가 없이 여야가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교학사를 비호했다라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8개 교과서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는 친일도 있어서도 안 되고 중북도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선전서가 아니라 정당한 역사의 기록서 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회의에서 저희가 또 하나씩 반박하면 회의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희도 잠시 야당 위원님들 기자회견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윤관석 위원님!

○**유기흥 위원** 제가 먼저……

여당 간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야당 간사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 앞두고 10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시 50분에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시간에 상임위장에 도착하지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니다.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회의를 방해했습니까? 의사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발언하실 분들은 남아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사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 온 데 대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양

해를 구합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안 계신데 이것 사전에 양해 구하셨습니까?

○**김희정 위원** 제가 지금 양해 구했습니다.

○**유기흥 위원** 이제까지…… 지난번에도요, 지난번 2일 날 결산하는 날 저녁 저희 8시 반까지 했는데 그때 새누리당 위원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양해 구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이중 잣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 중의 안인 영훈국제중학교의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성적을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고등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재용 증인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협상이 아니라 그것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당 간사께서 밝히셨고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 3인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간사협의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것 끝나고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태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신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증명을 보낸 교사 필자 3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아니, 교육부장관은 자료도 주지 않고 자료 주지 않은 조건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입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 자료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 무엇을 가지고 장관의 말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증인과 참고인들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아까까지도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어떻게 계속 협상 중인 내용을 그렇게 미리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계속 오전 내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계신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밝힌 것이 우리는 상임위원회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의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바로 올라와서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했던 것까지를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니요?

저는 그런 것은 우리 교과위 시절부터, 교문위

시절부터 이석할 때 일일이 다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윤관석 위원 이것은 서로 여야 간사끼리 정회 협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신학용 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년 위원 김태년 위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보셨으면 좋았을 걸, 이것 새로운 건데……

유영익 위원장님 이승만 전 대통령 전문가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김태년 위원 방금 발언은 참 유감이네요.

‘현대사 자료 정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국편위 위원장을 맡으셨다’ 그러면 우리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이걸 별로 안 중요합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김태년 위원 그것은 그쵸 하고요.

아니, ‘현대사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국편위 위원장을 맡으셨다’ 이렇게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는 별로 안 중요하냐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김태년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승만 대통령 전문가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김태년 위원 이승만 평화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지철근 박사라는 분을 잘 아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잘은 모릅니다.

○김태년 위원 수산학계 원로지요?

‘평화선 이후의 40년’이라는 92년도 논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65년도 한일협정의 어업 분야를 총괄했던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독도를 빼고 이승만 평화선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자기 논문에 밝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이 반대해도 독도를 포함해야 된다 이래서 최종판에 넣었다.’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부분 처음 들었습

니다.

○김태년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김태년 위원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철근 박사의 논문입니다. 2002년에 후지이 켄지라는 시마네현의, 일본 사람입니다, 한 시립고등학교 교사가 이것을 인용해서 논문을 씁니다. 오른쪽 사진인데요. 이게 후지이 켄지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 지철근 박사 논문에는 여기 보면 독도가 있지요, 여기? 여기 이게 울릉도이고 이게 독도입니다. 독도라는 표기가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보입니까?

그런데 후지이 켄지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는…… 이게 똑같은 지도예요. 똑같잖아요. 어업선 그려져 있고, 똑같지요? 여기 보면 독도가 빠져 있지요? 없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여기 이것 보면 출전이 지철근 박사 논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지이 켄지는 지철근 박사 논문을 가져와서 독도를 삭제한 채 자기 논문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 왜곡이지요? 출처는 지철근 박사 꺼라고 해 놓고…… 후지이 켄지라는 사람이 이것 왜곡한 것이지요, 삭제했으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 것이지요. 왜곡한 거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도 보이기는 합니다. 독도 있는 동그라미 왼쪽에 세로로 된 글자가 있는데 이쪽에는 세로로 된 글자가 없고 그래서 뭔가 좀 차이가……

○김태년 위원 아니, 여기 ‘지철근 박사가 쓴 논문에서 인용했다’ 출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도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독도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왜곡한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무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해양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들도 하는데 영토 선언의 의미가 강하지요, 당시에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방금 보여 드렸던 후지이 켄지 2002년도 논문입니다. 방금 보셨어요. 이게 교학사 교과서 355페이지 우측 사진입니다. 똑같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교학사 교과서 355페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뭐냐 하면 독도가 2개 다 삭제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 설명이, 이미지 설명이.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355페이지는 이 지도, 후지이 켄지가 쓴 논문하고 똑같은 건데 ‘이승만 평화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도에 관한 설명에서 이 지도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이 쓴 논문이고요. 하나는 교학사 교과서인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자가 원문을 찾아서 확인하고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학사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고 ‘이승만 평화선’을 단순히 어로구역 선언 이렇게 보는 일본인의 지도를 베껴 쓴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출전에 대해서는……

○김태년 위원 이 사람이 ‘독도는 일본 땅’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지도를 가져와 그대로 인용해서 독도 삭제한 채 썼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본 극우파들이 보면 아주 좋다고 하지 않겠어요? 막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봐도 독도라고 명기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독도 그 전문 평화선 안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어떻습니까? 저자가 이것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부장관 서남수 글썬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거기 독도라고 명기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글썬요. 그것을……

○김태년 위원 그래서 엉터리 부실 교과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고 알고 한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 사진에 대한 출처를 독도본부라고 했어요. 독도본부라고 표기를 했어요. 독도본부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민간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한 건설한 단체예요. 이 지도의 출전을 독도본부라고 명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독도본부는 이 이미지를 실으면서 출처를 어디라 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후지이 켄지 논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구글, 네이버 이렇게 단순히 검색된 사진이 아닙니다. 이것 알면서 인용한 겁니다. 이것 단순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말씀을 못 하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유기홍 예.

○김태년 위원 대한민국 관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우리나라 관보입니다. 여기에는 독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치면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 지도 이미지를 놔두고 일본인, 그것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우익 인사가 쓴 논문 여기서 굳이 갖다가 이 교과서에다가 실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부실하고 왜곡된 교과서, 아이들 손에 쥐어 주면서 대학 시험까지 치게 할 겁니까? 이것 검정 취소사유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입니다. 이것 서류 제출받을 때 다 나누어 주는 서류예요, 출판사들한테. 여기에 보면 판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심사 관점별 ‘있음’과 ‘없음’으로 심사하여 1개의 심사 관점이라도 ‘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음’, ‘없음’으로 해가지고 1개라도 ‘있음’으로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 검정기준 관점에 보면 네 번째, “대한민

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있음’이 나오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1개라도 ‘있음’으로 되기 때문에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검정 취소사유가 되지요?

이것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이 세 기관이 각 출판사한테 나누어 준 거예요.

○위원장대리 유기홍 장관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내용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경우에도 교과서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선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거기에 독도라는 말을 명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해당 부분에 보면 ‘선포구역 안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기홍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은 교학사 교과서가 별문제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 고요.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이 교과서가 교과서 집필기준에 맞게 집필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몇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일제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주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사진이요 1930년대 명동거리의 모습이거든요.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차림새나 일본어 간판을 제외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 모습과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제 열기’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뭐라고 있냐면 “이러한 명동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1930년대 명동거리의 발전된 모습이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저게 총독부가 주도하는 식민지 자본에 진출한 모습입니까, 민족 경제로 이룩한 모습입니까,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건 일본……

○도종환 위원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기술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기홍 간사, 김태년 위원과 사회교대)

○도종환 위원 또 280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계천 이북 북촌하고 마포에 한국인들이 거주했는데 일본인들은 청계천 이남의 남촌과 용산 등에 거주를 했다.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신시가지를 조성하였다. 이 같은 모습은 다른 식민도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내쫓긴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그냥 신시가지를 조성했다는 이 글에 문제없습니까,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교통과 통신 발달, 공간 관념 변화’와 관련해서 283쪽에 “1900년대 초에 개통된 철도는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석탄·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공장지대로 운송했다.” 이러면서 “철도를 이용해서 먼 거리 여행도 가능해졌고 또 새로운 공간 관념이 형성되었다.” 이랬어요.

이 철도가 어떤 목적으로 건설됐는지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란 다 아는 겁니다. 대륙 침략, 중국으로 침략하기 위한 수단이자 또 우리의 물자 이런 것을 수탈해 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철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 관념이 형성되었으면 그러면 옛날 중

국과 만주에서 출발하였던 고구려라든가 고조선은 우리의 공간 관념 속에 없었던 나라들입니까?

또 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282쪽에 “근대적 시간 관념이 일제 식민지시대가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점차 수용되어 갔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283쪽의 ‘사료탐구’에 보면 “동경에 있는 생활개선동맹회에서는 작년과 같이 오는 6월 11일에 ‘때의 기념일’을 거행한다.” 이래서 시간을 존중히 여기는 사상 이런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동맹회장 이토 히로구니 씨로부터 사이트 총독에게 부탁을 했고 총독부에서 매우 환영했고 그래서 때의 기념일을 거행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해 보기’ 과제에서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 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과제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는 이런 근대적인 시간 관념도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들로, 미개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우리 교과서 집필기준 13쪽에 보니까요 “일제 식민통치 방식이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일상적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에 유의한다.” 그리고 “일제의 경제정책에 따라 경제상의 지표의 변화가 보였으나 이는 식민지 수탈정책의 일환이었음에 유의한다.” 이렇게 집필하라고 집필기준에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여기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 중에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 표현만 적절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내용에서 다른 부분에서 ‘근대화 식민지론은 받아들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명백하게 기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근대화 식민지론을 전면적으로 차용했다고 보기보다는……

○**도종환 위원** 아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근대화 식민지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지 않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것은 좀 수정·보완이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위원** 또 집필기준에 보면 “일본의 독점자본이 진출하면서 한국인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리 민족의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집필하도록 했고요.

또 일제 경제적 수탈 속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또 이분들이 땅을 잃고 집을 잃고 만주나 연해주나 이런 쪽으로 전부 쫓겨 가고 거기에서 오륙십만 명 이상이 삼부자치주를 만들어 가지고서,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또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쫓겨 가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아는데 아까 도시 양성 부분, 북촌 쪽에는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거주했고 용산 쪽 이런 쪽에는 일본인들이 시가지를 형성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을 그냥 저쪽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용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얼마나 심하게 수탈하고 우리를 억압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식민지 근대화론을 차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곳 저곳에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도종환 위원** 그거 자체가 집필기준에 위배가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평가가 되는 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좀 수정·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나머지는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석 중이어서 다음 질의는 박혜자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사실 친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정권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신임 국사편찬위원장님께서 현대사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

셨는데요. 정말 현대사에 대한 기술을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것은, 저 위에 있는 것은 교학사입니다. 각기 교학사와 미래엔 교과서는 부정적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글씨로 보시게 되면 “그러나 법치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대륙 유화책으로 두드러져 보이거나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 네 줄에 이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저 글씨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앞에 두 줄 소개하고 네 줄은 사실 부정적인 평가지요. 그런데 검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문제없어요.

그다음에 미래엔 교과서를 보시지요. 미래엔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줄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긍정적인 기술을 하고요, 마지막 두 줄 반 정도 “하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 이명박 정부의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검정심의위원회가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를, 수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과연 균형이 있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내용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파악을 해 봐야 보십니까? 실제 지금 내용이 그대로 써져 있잖아요. 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보완 요청이 없어요, 정말 장장 네 줄에 걸친 비판을 해도.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두 줄 반 비판하니까 당장 빼라고 그렇게 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지요.

그다음 또 보시지요. 그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미래엔 교과서와 교학사의 긍정적인 기술에 대한 겁니다.

긍정적인 기술에서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정

부는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을 펴면서도 독점기업을 규제하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다음에 교학사 교과서에는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보다 확실히 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2012년 20-50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되었다.” 상당히 긍정적인 기술이지요.

이거 검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위의 긍정적인 기술은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학사의 긍정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위의 교학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정 요청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몇 줄에 걸쳐도 ‘오케이’, 그런데 조금만, 두 줄에 걸쳐서 가령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안 돼’ 이런 겁니다.

이거 과연 균형 있게 지금 현대사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정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문제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정권에 대한 평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듣기 때문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처음 들었지만 지금 이 사실 그대로라면 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편향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제가 소장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나치게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일방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장관님께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긍정적인 평가는 없어야 되고 부정적인 평가는 오케이입니까? 그 분량도 현격하게, 배 이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이든 저는 잘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점도 있을 거고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러한 데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은 안 되고 찬양만 일색으로 해야 된다…… 장관님, 그렇게 아이들 교육시켜야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는 교과서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시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또 유명익 국사편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자료 보시면서?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작업을 할 때 그게 8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검정작업이. 제가 임명받기 훨씬 전에 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몰랐는데 오늘……

○**박혜자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유명익 위원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신 소감이 어떻느냐,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동안 일을, 검정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소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지금 제시하신 문구들만 가지고 보면 좀 균형이 깨진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5·18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보시지요.

팔호 안에 빨간 줄 쳐 놓은 데 한번 보시지요.

“하지만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해 놓고 “충돌은 유혈화되었고 시위대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하였다. 5월 27일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을 광주에 진입시켜 광주를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문제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 더 쓸게요.

제대로 지금 서술이 되고 있습니까?

왜 충돌이 유혈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대규모 시위로 번졌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위대가 무작정 도청에 진입을 했습니까? 도청을 점거했습니까? 시위대는 이유도 없이 도청을 점거하였습니까?

5·18이 발발한 제일 큰 원인이 되었던 발포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이 무력 진압, 발포에 의

해서 대규모 시위로 갔고 도청 점거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왜 밝히지 않습니까? 시위대만 무장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그 희생자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또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서술이 없습니다.

5·18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발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지켜야 될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발포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시위대가 도청에 진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장관님, 이것 소견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기술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로서는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박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이석 중인 관계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유명익 위원장님, 아까 본질의에서 답을 주시겠다고 그랬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예.

○**박홍근 위원**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결산 상정 때 여쭙어 봤는데 당시 교문위 회의록을 보면, 그때도 제가 몇 가지 여쭙어 봤더니 거의 ‘아니다’라고 다 부인했습니다. 당시 8·15와 관련해서 ‘건국절 제정 주장에 동참하거나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직접 나선 일 없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지금……

○**박홍근 위원** 사실관계만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국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저는 말이지요……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 사실관계만 먼저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신 게, 그대로 제가 회의록을 지금 보여 드

리고 있다니까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과 결부시켜서 말이지요, 제가……

○**박흥근 위원** 아니, 사실관계만 먼저 답을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게 사실이지요? 회의록을 그대로 보여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부정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건국절을 만들자는 것을 주장하거나 선도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니까 ‘선도’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썼습니까? ‘주창한 것에 동참했거나’ 이렇게 표현을 썼지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쭙어 볼게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2003년도 주간 ‘미래한국’ 인터뷰 거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8·15를 광복절과 건국절의 의의 중에서 건국절의 의의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 하셨습니다. 맞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그렇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리고 2008년도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2008년 7월 23일 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박흥근 위원** 아까는 기조연설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여기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입법의원, 행정관료들이 이 나라의 우매한 백성을 유능하고 발전 지향적인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게 썼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면서 “8·15 하면 광복절로 받아들였지 건국기념일임을 생각하지 못했고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박흥근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저기에 ‘주창운동에 참여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주창을 한 게 아닙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니까 주장하는 데 동참하신

것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동참은 했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래서 건국절 제정 운동을 주창하는 기자회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거기에 지금 버젓이 앉아 계시잖아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박흥근 위원** 그러면 건국절 제정 운동에 대해서 동참하신 거지요. 그게 본인과 상관없는 것처럼 지난번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지금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박흥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 사실을 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었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 주세요.

제가 건국절 제정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거나 얘기를 할 때 ‘건국절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에 준하는 어떤 결의문을 통과시켜서 할 일이지……

○**박흥근 위원** 그것은 방법의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 상당히 알아주는 OECD 국가 중의 하나로서 건국절이 있어야만 좋겠다. 그렇지만 그 건국절을 만드는 것은 헌법 개정에 준하는 결의문이 있어야 된다.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흥근 위원** 하나 더 여쭙어 볼게요.

당일 제가 교과서포럼과 한국현대사학회 고문 맡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추대 받은 것 목인만 했다’ ‘역할 한 게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맞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사실입니다.

○**박흥근 위원** 2008년도 3월 동아일보 기사에, 이영훈 교수 잘 아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박흥근 위원** 이영훈 교수가 당시 대안교과서 책임자였지요, 이분이? 책임편집자였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유영익 연세대 석좌교수

등 역사학 전문가 4명이 책을 꼼꼼히 감수했다' 이분이 그러면 거짓말을 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공한 시대에 대해서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왜 역할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역할이 없다고……

○**박홍근 위원** 그때 첫 온 자리에서부터?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부분적으로 감수했다고 분명히……

○**박홍근 위원**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요, 그때 부분적으로 감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고문으로서 본인을 추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지금 이영훈 교수가 만든 대안교과서하고 현대사연구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홍근 위원** 아니, 이 대안교과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시에?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런데 이영훈 교수가 제가 알기로는 현대사학회 멤버도 아니고 아무 역할도 맡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지금 첫 자리 국회에서 우리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일방적 강행 임명으로 첫 자리에 나오셔서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건국절 제정 운동에 동참한 거나 아니면 현대사학회나 그다음에 교과서포럼의 고문으로 버젓이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할 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시는 이런 분을 저희가, 과연 국사 사료의 편찬책임자 최고의 수장으로서 저희가 과연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관님, 한번 여쭙어 볼게요.

그날 저희가 여쭙어 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편위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첫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거짓 허위 답변하시는 분이 과연 국사편찬의 최고책임자로서 적합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허위로 말씀하셨다가보다

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말씀하신……

○**박홍근 위원**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그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역할에 대해서 분명 본인은 역할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런 자세를 가지신 분을 국사편찬의 책임자로 계속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지금 질문 안 했습니다. 더 여쭙어 볼 게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제가 부분적으로 감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확실히.

○**박홍근 위원**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교학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예,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 교과서 뿌리가 됩니까? 다들 지금 얘기하는 게 '한국근현대사'라고 하는 대안교과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이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박홍근 위원** 그게 뿌리가 되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박홍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되는 교과서, 이번에 권희영 이 대안교과서 만든 포럼의 전임 회장이었고 이번 집필자 이명희 교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현직 회장으로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여기에 고문으로 두 개 다 계셨던 것이고……

잠깐만 들어 보세요.

여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 역사관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교과서포럼 공동대표였던 이영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거기의 공동대표인 박효종 교수는 일제강점기를 '근대 문명을 학습해 근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축적되는 시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우

상화하면서 당시의 국민들을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우매한 백성’ 이렇게 폄하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은 단체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기초가 되어서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가 만들어졌다는 것 아까 인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을 하야시켰던 4·19 혁명 이것을 민족의 지도자인 이승만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매한 백성들의 행동으로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4·19에 의해서 해야 하시는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냈지만 애석하게도 독재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공칠과삼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실정을 저질렀다고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우리 국회의 첫 출석의 자리에서부터 거짓말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너무나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지신 분이 지금, 아까 첫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현대사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국편위원장 때문에 아마 우리 상임위가 누누이 여러 가지 갈등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을 이번에 모시게 된 거예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사임, 사퇴를 해 주시는 것이 이 안에서의 갈등을 방지하고 우리 상임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유영익 위원장의 사퇴를 대통령께 건의를 해 주시고 그전에 본인께서 먼저 사임하시는 게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 다 들어오셔서요.

강은희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유영익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 평생 우리 역사를 기록한 원로 역사학자를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사관을 가진 분으로 방금 박홍근 위원님께서 주장하셨지만, 국사편찬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항할 근본적인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그저께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학자입니다. 24년 전에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판한 책에 실린 논문에서 그 점을 그 논문에서 다섯 번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예, ‘한국 근현대사론’에 실린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의 근대화 문제’라는 논문은 내신 적이 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강은희 위원** 이때 ‘한민족독립운동사’ 제5권에 실렸던 것을 약간 수정을 거쳐서 전제하셨는데 논조를 뒤집을 정도로 수정한 것입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약간의 수정을 한 것뿐입니다.

○**강은희 위원** 국사편찬위원회의 논문집은 한국 역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논문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만약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논문이 공신력 있는 논문집에 실리는데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의 인문사회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8종 교과서인데요. 8종 교과서 중에 제가 이학재 위원님에 이어서 금성교과서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조금 작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성교과서 349쪽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광복 직전 국내외 항일단체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그림 중 오늘 기자회견처럼 1939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지요, 장관님? 1940년에 충칭에 정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및 여자정신근로령도 금성사 교과서 302쪽에 보면 다른 전제 없이 “일체는 여자정신근로령(1944년)을 발표하여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조선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44년 전쟁 막바지에 일부 여성들에게만 발생한 사건처럼 보이는 서술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것도 역시 교학사 교과서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365쪽 정미의병입니다. 항일 의병운동이라는 주제하에 정미의병 내용을 기술하였으나 정미의병이라는 용어 자체를 생략했습니다.

124쪽입니다. 124쪽에는 성리학의 수용과 교육기관의 재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충렬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사당’ 하고 등등 나오는데 충렬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한 게 아니고 충렬왕 때는 성균감으로 개칭하고 성균관으로 개칭했던 것은 충선왕 때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충렬왕 때는 성균감으로 개칭했던 그러니까 이것 수정해야 되겠지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고려의 대몽항쟁에 관련된 98쪽 내용입니다. 지도에 제주도 및 서남해안 섬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 ‘세계 속의 대한제국’에서 ‘1899년 만국우편연합 가입’ 되어 있는데 실제 가입된 것은 1900년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사실관계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지금 한 교과서에서 죽 나오는데 이 사진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장관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18년간 집권한 대통령인데요, 마치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서 선서하는 듯한 흑백의 무표정 고개 숙인 모습으로 단 한 장, 전

체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한 장 실렸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 사실 인정합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서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08쪽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하고 지금 김정은 현 위원장의 모습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사진의 위용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금성사 교과서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김정일 위원장이 관련된 사진이 무려 세 컷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사진은 이 고개 숙인 초췌한 모습의 단 하나의 사진이 나옵니다. 통치기간이나 그리고 어느 나라 정부인지, 우리가 어느 나라 정부에 살고 있는지를 감안한다면 지나친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정권의 부패와 무능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였다.” 사실 이것 맞습니다.

다음 “북한 김일성은 전쟁 책임을 물어 박헌영 등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가 자리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는 사실인데 이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예.

○**강은희 위원** 이 사실을 보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일정보다 더 나쁜 지도자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느끼시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보다 북한 독재자가 더 우월해 보이고 우호적 느낌이 들도록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배재정 위원님은 다음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넘어가서.

○**김상희 위원** 경기 부천 소사 김상희입니다.

지금 장관님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죽 보면서 그리고 또 그전부터도, 이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는 충분히 이제 인식이 되셨지요? 장관님, 충분히 인식이 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도 충분히 인식이 되셨지요, 예?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예.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누가 보더라도,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교과서가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역사 왜곡이 심하고 그리고 정말 불균형하게 편파적인 교과서인가 하는 부분은 다 앞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는 굳이 이 부분을 검정 취소를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계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장관님, 교과서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명박 정권부터, 그 이전부터 생긴 거지요? 그것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몇 년도부터 생긴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

○**김상희 위원** 대답 못 하십니까? 교과서 문제가 정치 이슈화된 것이 2004년도부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상희 위원** 2004년 9월 한나라당에서부터 교과서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는 갑자기 오늘 어떤 정말 질, 수준이 낮은 교수나 저자들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니라 2004년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교과서를 흔들고 ‘역사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꼭 역사 전쟁의 관점에서 보다는……

○**김상희 위원** 그렇게는 안 보신다 이 말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9월 4일 날 교학사 교과서의 수준 이하 그리고 또 역사 왜곡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교학사를 도와주는 공권력을 확립하는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잘해 보겠다는 국민 기업을 보호해 줘야 된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승리로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현재 교과서 사태에 대한 성격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들어 봤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김상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제기를 하는데요.

○**김상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느냐……

○**김상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교과서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2004년도부터 치밀하게 끊임없이 보수 세력에서 이 문제를, 역사 전쟁을 도발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치적 결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후소야 교과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뿌리를 둔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뿌리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과서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과서는 지금 친일을 미

화하고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친일에 기반을 둔 세력, 독재에 뿌리를 둔 세력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과서 전쟁을 2004년부터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전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전쟁은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기어이 지금 2008년도에 이 부분을 수정 지시를 했지요, 이명박 정권에서. 알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지요? 무리하게 이명박 정권에서 1차 역사교과서 전쟁을 시도한 것은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금성출판사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해서 집필기준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집필기준을 바꾸는 전략으로 선회했는데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학사 교과서 3차 역사 전쟁을 한 것입니다. 교학사를 통해서 3차 역사 전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리고 또 아쉽게도 철저하게 이 교과서가 아주 부실하고 기본이 안 되는 교과서가 나온 겁니다. 역사 왜곡이 말할 수도 없이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장관님과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3차 역사 전쟁, 이제는 항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역사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8종 교과서를 함께 검토하라고 하는 매우 법적인 근거 없는, 편법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닙니다. 정당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좀 더 나은 교과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앞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8종의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교육부 직원의 보고를 듣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거기에서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수정을 검토하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역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고 하는 특정한 정치 세력의 압력에 장관께서 굴복하시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 작업이 전부……

○**김상희 위원**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근거 제시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수정·보완이 완료가 되면……

○**김상희 위원**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왜 8종을 장관이 다시 재검토 지시했는가 하는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것은 9월 30일 장관께서 결정한 이후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고 그 밑에 있는 조선일보 기사는 5월 30일 교학사 사태하고는 관계없는 때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장관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역사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에게 대혼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에게 굴복해서 장관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정말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아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장관님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극복해야 될 두 가지의 자학사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식민사관, 일제시대에 일제 총독부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왜곡을 가해서 심어 놓은 식민사관, 또 한 가지는 참 표현이 종북사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 포괄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아주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소련 정통론에 근거한, 그에서 파생되거나 변형되어서 아직 나타나고 있는 친북·종북사관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7종의 교과서, 기존 교과서들

의 역사 인식은 정확하게 이러한 좌파적인 중북사관에 매우 근접해 있다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좀 보시지요.

천재교육의 307페이지입니다. 단독정부 수립과 관련된 책임 부분입니다.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좌우합작 7원칙, 그리고 김구의 '3000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향'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분단 책임이 이승만 쪽에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뒤로 가 보면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제일 처음 나왔던 307페이지 기술과는 달리 여기에는 1946년 2월에 이미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되어서 김일성이 위원장이 되는 사회주의 정권 수립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즉 사실관계를 빼먹지는 않았는데 선후 관계를 교묘하게 배치함으로써 마치 이 교과서를 처음으로 읽어서 이 시대의 역사 인식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독자가 보게 될 때는 분단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게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비상교육입니다. 천재교육과 같이 350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정부 수립 준비 과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뒤쪽에 배치를 시키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김구의 '3000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비교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353페이지를 보면 역시 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 47년 헌법 초안 작성 등 김구의 '3000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향'보다 앞선 역사적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역시 똑같은 방식입니다. 뒤에 나타나는 일을 앞에 배치하고 앞선 일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오인되게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을 이렇게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마는 역사 왜곡에 아주 천재적이고도 비상한 재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미래엔 보시지요.

310페이지입니다. 북한의 정부 수립 준비 과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뒤쪽에 배치시키고 역시 이승만 정읍 발언과 김구의 '3000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한 페이지에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315페이지를 봅시다. 역시 46년 2월 김일성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교과서의 기술이 마치 짝 듯이 똑같은 배치와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언가 교과서 집필진 간에 긴밀한 협의나 생각의 공유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다른 교과서에서 똑같은 체제가 나오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기 가상 포스터 한번 보시지요. 6장의 포스터가 있는데 물론 김구 선생께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는가는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 기호 6번으로 저렇게 사진의 전반적인 배치, 크기, 해상도, 그리고 화질, 그리고 기호의 어떤 표시, 여러 가지를 볼 때 아주 조악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의도적으로 격하· 폄하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좌편향 7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 조작의 사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슬라이드 자료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유영익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제는 한국의 정치가 근대화·발전한 것처럼 선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억지였다.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은 유례없이 포악한 식민 통치하에서 정치참여권을 박탈당하고 행정을 담당할 의욕을 상실한 위에 간교한 민족분열정책에 휘말려 민주적인 자치능력 개발기회를 빼앗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한국인의 정치역량 개발은 크게 둔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10년 토지조사사업 등' 중략하고 “일련의 경제개발사업을 통해 나타난 외형적 경제발전은 모두 일본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었던지 한국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부에 가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은 철두철미 식민모국(일본)의 이익을 위주로 입안·집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식민지적 근대화는 한국인의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되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민족 사상 최대의 상처와 고통을 준 과잉 발전 내지 잘못된 발전이었다. 고로 일제하의 외피적 근대화를 한국의 진정한 근대화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친일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委員** 누가 쓰신 것입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썼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논문과 저서와 강연회의 아주 지역적인 부분만 따서 친일사관을 가졌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로학자를 이렇게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1분간 마무리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감사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답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치 현대사학회의 고문으로서 교학사의 교과서 만드는 데 말하자면 간접적으로나마 고문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현대사학회의 창립총회에 나가 가지고 고문으로 추대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학회의 고문 역할, 자문 역할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사학회의 회장이 두 번 바뀌었는데 그 회장 선거에 제가 전혀 자문을 하라고 부탁도 받은 일도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를 인식하시려면 저는 역사학회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한국에서 역사학회는 가장 높은 객관성을 인정받는 가장 오래된 역사학 연구단체입니다. 저는 거기의 회장직을 담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인식하실 때는 현대사학회의 고문을 했다고 인식하시지 말고 역사학회의 회장이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

요.

○**배재정 위원** 배재정입니다.

박홍근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바로 했으면 했는데 중간에 다른 분들이 하셔서 집중도가 떨어질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유영익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제 질의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또 강조하셨지요. ‘교과서포럼이나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으로 활동을 한 것은 추대만 되었지 활동한 바는 전혀 없다’ 그저께도 말씀을 하셨고 금방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지난 수요일입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고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좀 찾아 봤는데요. 2008년 9월 1일 자 한동대학교 학보인 한동신문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학생들이 유영익 위원장님을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하셨어요. “일부 학생들이 나를 뉴라이트 계열의 지식인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교과서포럼에서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감수 역을 맡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가 지식수준이 엄청 높은 한국 국민의 역사교과서로는 부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체할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 때마침 나와 의견을 같이하는 젊은 학자들이 교과서포럼을 구성하여 새로운 교과서 준비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힘껏 도왔다. 특히 나는 내가 전공한 19세기 후반의 역사와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등에 관한 원고를 감수했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대안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배재정 위원** ‘힘껏 도왔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름만 올려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어떻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지금 그러니까 대안교과서의 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대사학회를 힘껏 도운 일이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현대사학회와 관련해서는 없다고요? 그러면 대안교과서와 관련해서는 힘껏 도운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 부분, 19세기 역사와 미국에서의 한국 독립 운동, 그다음에 건국 과정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수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와 의견을 같이하는 젊은 학자들이 교과서 포럼을 구성해서 새로운 교과서 준비 작업을 시작해 그들을 힘껏 도왔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의견을 같이하는 젊은 학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이영훈 교수입니다, 특히.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분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후에 저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안교과서가 나온 다음에 제가 부탁하기를 이것은 대안교과서다, 앞으로 교과서가 될 준비가 되는 그런 교과서로 여기는데 이게 진짜 좋은 교과서가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다른 여러 학자들이 이 대안교과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배재정 위원**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교학사 교과서 주집필자인 이명희 교수도 당시 교과서포럼의 핵심 운영위원이었고요. 잘 아시겠습니까만 이분이 역사계의 좌파 장악 이것과 관련해서 강연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좌파 진영이 교육계·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좌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게 우리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것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배재정 위원**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배재정 위원** 그러면 당시에 한동대 인터뷰에서 “내가 가르칠 과목에서 사용될 교재는 최근 출판된 다른 책과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이다. 이 두 책은 내가 보기에 100% 만족스럽지

는 않다. 그러나 다른 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교과서를 결국에는 안 썼습니다.

○**배재정 위원** 왜 안 쓰셨어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왜 안 썼느냐? 제가 아까 이영훈 교수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자고 한 것은 일제시대사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심을 가졌어요.

○**배재정 위원**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08년 당시 유영익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학부생들 증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교재로 선택하신다고 했을 때 학부생들 사이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학회인 국제정치학회에서는 반대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런데 유영익 교수를 추천하신 김모 교수가 이를 찢어 버린 사건까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대안교과서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익 위원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안 쓰신 게 아니라 교재로 쓰려고 했다가 상당한 반발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부교재로 썼다는 증언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끝이끝대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교과서를 제가 안 썼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저는 거기서 한국사라는 과목을 배정받지 못했어요. 학교 당국이 아마 학교 분위기상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교양특론을 가르쳤습니다. 첫 학기에……

○**배재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대안교과서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재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씀 그대로 남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랬지만 실현을 하지 않았습시다.

○**배재정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실현을 못 하셨을 뿐이지.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나운데……

○**배재정 위원** 제가 그래서 대안교과서와 관련되어서 ‘한국 근현대사’ 내용을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일본인 대리업자가 여인들에게 제시한 것은 큰 돈벌이, 가족의 빛 갚기, 쉬운 일,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삶…… 이러한 꿈에 빠져 많은 여성들이 해외 취업에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탈론 실증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빈곤의 근본 원인은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농촌 과잉인구의 축적이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대안교과서인데 우리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재로 삼았다’ 이런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인터뷰를 제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저의 강의를 반대하는 학생들이 방을 붙이면서 저를 그렇게 인터뷰를, 말하자면 편집을 했습니다. 저보고 질문을……

○**배재정 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유영익 위원장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들이 이렇게 인터뷰에 났다는 그런 의도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지금도 생각하는데……

○**배재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교과서 그 내용에는 동의를 했으나 교재로 삼지는 않았다고. 왜 또 말을 바꾸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교재로 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후반과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그다음에 대한민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교재로 삼지 않으신 게 아니고 삼고 싶었으나 삼지 못하신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국회에 와서조차 옳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배재정 위원** 이런 교과서를 상당히 만족스러운 교과서라고 하신 우리 위원장님은 국사편찬위원장의 자격에 맞지 않으세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

라 역사 편찬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퇴하시기를 간곡히 권의드립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신학용** 예.

○**유기흥 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그런 인터뷰를 했던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건 지금 배재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 인터뷰한 사실관계 자체를 본인은 부인하시고 배재정 위원은 자료를 봤다고 하니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학용** 예.

우선 위원장께서는 그런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인터뷰한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교과서는 앞으로 정식 교과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교과서로 보았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낫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해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영훈 교수가 애길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지금 저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30초만 하세요.

○**배재정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또 그새 말씀이 바뀌세요? 아까는 학생들이……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전혀 바꾼 게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인터뷰를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내용이 나갔다고 얘기를 해서 놓고 금방은 또 그 사실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이 바뀌고 계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까 낭독하신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제가 강조했던 점, 말하자면……

○**배재정 위원** 왜 말씀을 자꾸 바꾸세요?

○**위원장 신학용** 나중 최종 답변은 인정하는 것으로, 저도 한 내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발언이 중요하니까요.

○**배재정 위원** 왜 자꾸 말씀을 바꾸세요?

○**안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하세요.

○**안민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의 답변 태도·자세,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저께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두 번째 뵙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면 경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 도대체 무슨 백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고합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죄송합니다.

○**안민석 위원** 이후에 위원님들 말씀……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국회를 운영하는 상식의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설명할 때는 경청을 하고…… 역사학자, 역사학회 회장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조리 있게 간단하게 본인의 입장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위원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벌써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질의 후에 약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실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니까, 장관님? 아마도 역사를 잘 배워 가지고 그 거울을 비쳐서 앞으로 잘 나가자는 그런 뜻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렇게 역사를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감수성 예민할 때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사실이 정확해야 됩니다. 팩트가 틀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장실 위원** 두 번째, 역사의 해석이 한국인의 헌법적 가치하고 부합되는가, 한국의 국민적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방향으로 살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런데 이번 역사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미래엔 교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우선 팩트 틀린 게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지요. 미래엔 교과서 28쪽에 보면 신라의 발전 지도에 보면 진흥왕 때 영토의 확장을 하슬라, 실직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진흥왕 이전에 이미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입니다.

또한 “조선을 세우기 직전 개국공신 조준” 해 가지고 128쪽에 보면 개국되기 전에 개국공신이라는 표현, 이런 것도 용어도 부적절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독립협회는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라고 했는데 영은문은 1895년에 허물어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았고 독립문은 1896년 기공해 가지고 189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팩트가 사실상 많이 틀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교과서가 그대로 그냥 통용된 겁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다음에 사실의 해석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래엔 같은 거 보면 “유엔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 이것도 틀린 것 아닙니까? 유엔에서는 한반도의 유일합법한 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반쪽으로 축소를 시켜 놨어요. 이건 분명히 틀린 거지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집필기준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다음에 균형 잡힌 서술이 아닌 게 드러나는 게 예컨대 6·25 전쟁 중에 국군이 나 북한군에 의해서 양민학살들이 전쟁 중에 으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쟁 중 북한군은 물론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 그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예로 거창양민학살사건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마치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만 부각시켜 놓고……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대표적인 예가 대전교도소 양민학살·함흥학살사

건 등 학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군이 와 가지고 한 개. 그런 건 언급도 안 했어요.

그거 외에도 북한의 경제파탄 원인을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적 도발행위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이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북한의 어려움이 경제 제재가 가해진 것도 있지만도 북한의 계획경제가 파탄 지경이 이르렀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것들 다 빼놓고……

그러니까 지금 7종의 교과서가 대체로 갖고 있는 문제가 객관적 사실의 오류도 있고 역사의 해석에서도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좀 적절하지 않은 기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미래엔 교과서로 수능시험을 쳐 보는 걸 한번 해 봤더니 답을 찾을 정답률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보니까.

지금 그러면 수능필수화가 곧 되지요? 몇 년도부터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2017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장실 위원** 그러면 이런 팩트가 틀리고 그리고 해석의 편향성을 가진 교과서를 가지고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 적에 어떤 혼란이 예상되니까,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금년에 검정이 된 교과서가 내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기초를 해서 2017학년도부터 수능시험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급되는 교과서는 특별히 그 정확성에 있어서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런데 7종의 교과서가 지금 수정지시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권고를?

○**교육부장관 서남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요청을 하면 수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게 현행 검인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전반적으로 이번 일을 죽 살펴보면 저희 검정시스템에도 좀 보완·개

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대표적인 게 검정심의위원회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이 사실 강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 가지고 내가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면 못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각 출판사가 심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사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과목이 뭘니까, 청소년 시기에? 국어하고 국사입니다. 그래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아니라 사실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갔으면 싶습니다만도 거기 가기 전에라도 어쨌든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검인정하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과정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장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10분간 정회할 테니까요 생리적 현상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같이하시면 안 될까요?

○**안민석 위원** 아니, 같이할 성격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실에서 ‘상식의 정치’라는 훌륭한 책을 발견하고 가지고 왔는데요.

수석님, 14일 날 증인신청 되려고 그러면 오늘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야지 월요일 날 당사자들한테 출석, 배달이 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예.

○안민석 위원 저는 증인 합의가 아직도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합의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14일 날 증인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장님의 책 제목처럼 ‘상식의 정치’가 가능할 텐데 이것 도대체 여야 의견이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두 감사 중지들이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서 상식이 통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학용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별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국정감사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어서 증인 출석 안 하는 국정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데 두 간사님께서 표정이 너무 밝으신 것 같아요, 이 심각한 상황에. 오늘까지 합의 못 하시면 두 간사님 관두셔야 돼요. 서상기 전 간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오늘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긴급 상황으로 이전의 간사들이 이 문제를 돌파하자 그렇게 서상기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라 하여튼 간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어차피 서로가 입장이 틀린 것은 다 내용은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타협을 하셔야지요, 타협을. 타협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아마 오늘 합의 못 하면 국감 3주 내내 이것 가지고 또 실랑이 벌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간사님께서 오늘 합의가 안 되면 간사직을 던진다는 그런 각오로 합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이것은 여야 위원님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는 제 발언이니까 꼭 오늘 12시를 넘기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저도 적극 노력할 거고요. 그런데 3주 내내 분란이 있을 거라는 건 옛날에 경험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 죽 들어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억울한 그런 심정을 많이 토로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친일 미화 역사학자로 지금 매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안민석 위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역사학자로 매도되는 것도 억울하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특히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학자로 매도되는 것은 더 억울하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위원장께서 뉴라이트 교과서, 뉴라이트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아마 실증주의적인 학풍을 따르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객관적·실증적, 실증적이라는 것은 자료에 근거해서……

○안민석 위원 일정 부분은 뉴라이트 대부라는 것에 대해서 수궁을 하시는 건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뉴라이트라는……

○안민석 위원 뉴라이트가 나쁜 개념은 아니에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 그 자체를 근래까지 잘 몰랐어요. 뉴라이트, 신우(新右)라는 뜻인데……

○안민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으로 인해서 상임위가 지금 완전히 축대밭이 되어 버렸어요. 연세가 80이 가까운 우리 사회의 원로이시고, 그래도 저명한 역사학자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토론하고 교육의 대안을 모색해야 될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축대밭이 지금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만 이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 위원장님이 계시는 한은 이 상임위가 교과서 전쟁이 가열차게 붙을 것 같아요. 참 유감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사편찬위원장 직책이……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유감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지요.

○안민석 위원 그런데 좀 전에 한 시간에 걸쳐

서 저희 야당 위원님들하고 죽 이야기한 것을 들어 보니까 위원장님을 뿔 달린 괴물로 지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안민석 위원** 뿔 달린 괴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매도를 당하시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상임위가 주야로 열리기만 하면 쑥대밭이 되어 버리는 앞으로의 일이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하를 떠나서 이 사회의 후배로서 또 이 사회의 원로 되시는 위원장님께서 사퇴하는 그런 용단을 내려 주셔서 이 상임위가 다시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충고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대통령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한 번도 만나 본 일이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을 대통령께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 주변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안민석 위원** 주위에 누가 했을까요? 안 모 씨 인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닌데요. 저는 그런 분 모르는데요.

○**안민석 위원** 7인회 멤버로 있는 안 모 씨하고 친분이 있으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안민석 위원** 전혀 모르는 분인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저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는 넓지 않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시고, 이 중요한 국사편찬위원장 자리를 분명한 이유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추천이 됐을 텐데 그것을 어느 누가 추천했는지를 지금 모른다고 하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아니면 아시면서 그 추천한 분을 밝힐 수가 없는 사연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한번 밝혀 드릴까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글썽요.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좀 진솔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누가 추천을 했다고 보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말씀은 지금 저로서는 할 수가 없는 말씀인데, 공개석상에서.

○**안민석 위원** 알기는 아시는 거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글썽요, 추측은 가는데요.

○**안민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지금 같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경복궁 경회루에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즐기 위해서 지었다는 ‘하향정’이라는 정자 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거는 잘 모릅니다.

○**안민석 위원** 처음 들어 보셨어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경복궁에 정자가 있는……

○**안민석 위원** 하향정의 존재를 모르고 계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정자를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요.

○**안민석 위원** 아니, 하향정의 존재를 처음 들으셨어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정자 이름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아는 하향정을 국사편찬위원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위원님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그렇게 자책골을 넣으시는 거예요. 하향정을 왜 모른다고 하세요? 보름 전에 9시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것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고종황제의 투구가 전시되었습니다. 그걸 아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것도 모릅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역사를 하시는 분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안민석 위원** 이것을 모르세요, 정말이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진짜 처음 듣습니다.

○**안민석 위원** TV 안 보세요?

○**위원장 신학용** 잠깐만요. 위원장님, 좀 진지하게 해 주셔야 되고, TV에 다 나고 신문에 다 났는데 그것도……

○**안민석 위원** 아니, 지금 잠시 달나라 갔다 오셨어요?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일본의 어느 곳에 있는 고종의 유물이라고 그러셨지요?

○**안민석 위원** 도쿄국립박물관에 그저께부터 전시가 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서 다 나왔던 것인데 달나라에 갔다 오셨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향정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국사편찬위원장께서, 또 도쿄박물관에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고종황제 투구와 갑옷의 존재를 모른다, 이것 초등학교 1학년도 지금 아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그저께, 오늘 답변한 것들에 대한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강렬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 때 두고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편찬위원장에 임명받으시면서 왜 이렇게 대체적으로 여당 위원들은 잘됐다, 40년 동안 학계에서 또 역사학에, 동서양에 다 조예가 밝으신 분이 맡게 되어서 다행스럽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국민도 그렇게 공감한다고 봅니다마는 오늘 민주당 위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교과서 편찬에 무슨 작용을 할 것이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우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사 자료를 편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저께 제가 취임식할 때도 직원들한테 “제가 하려는 것은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가 65년이 됐는데 그동안 조선시대사, 독립운동사 등등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됐지만 현대사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대사 정리를 하

는 데 주력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자꾸 의심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교과서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인가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당 위원들께서 7종의 교과서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또 교학사의 교과서가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아마 각자의 입장에 의해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뽕 달린 괴물이 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꼼꼼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충분한 반론이나 또 충분한 납득이 간다고 한다면 해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과서 전쟁이 뜨겁게 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나 이렇게 오류 또 수정할 부분이 많은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교학사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천재교육이라든가 전체를 보니까 굉장히 오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첫째적으로 858건이 교학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금성출판사가 767건, 리베르스쿨이 867, 352, 이렇게 4182건이 나머지 7개 교과서의 오류·수정되어 있는데 저는 교학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도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좀 다행인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교학사의 교과서는 아직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교학사에서는 오류를 수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적어도 완성된 교과서가 이제 학생들 손에 넘어갈 것인데 나머지 7개 교과서는 10년 동안에 벌써 학생들한테 가르쳐졌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저는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교학사는 고치겠다,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집필자들이 못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내용을 보니까 오늘 여당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야당 위원

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히 교학사, 다른 교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 많은데 못 고치겠다, 저는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일 수가 있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없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교과서를 잘 보니까 북한 서적, 북한 교과서에서 쓰는 것들이 일부 옮겨져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인용되어 기술되어 있고 또 어떠한 것은 그대로 옮긴 것도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서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정말 잘못된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근원적 차원에서 편찬위원장님이 중립을 지켜 나가면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공정하게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편찬위원장님이 초심 갖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역사학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좋은 교과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예, 유념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또 장관님께서서는…… 저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작년에 필수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택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8개 교과서를 가지고 가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 방에서.

그런데 교학사가 50점 만점에 45점, 지학사가 50점, 금성이 43점, 미래엔이 25점, 리베르스쿨이 36점, 비상교육이 31점, 두산동아가 39점, 천재교육이 5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50점 만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목이었을 때에도 이렇게 혼란을 겪었는데 만약에 수능시험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정답과 오기, 그리고 각자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또 역사 선생님들이 가르친 대로 배웠던 학생들 답이 틀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금 오류나 이런 부분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이전에 수정·보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수정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그 내용을 지적을 해서 드리면 그걸 다 받아들이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장관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천재교육 그리고 두산동아라든가 나머지 7종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감수 절차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필기준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염동열 위원** 그리고 국민배심원이나 국민들이 참여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존경하는 김희정 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야가 한번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위해서 예산도 좀 증액을 시키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염동열 위원** 그게 정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방법은 국정으로 가는 건데 국정은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그것도 염두에 두시되 어쨌든 지금의 검정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교육부의 절대적 사명이다 생각하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선 제가 아까 신상발언 한 것…… 시간 넘지 마시고요. 신상발언 한 것 다시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이 오늘 오전 발언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님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며 제주 4·3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학사 어디를 뒤져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사과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이 회의 진행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씀하신 속기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학사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대안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시지요.

○**염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분명히 “교학사 어디를 뒤져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마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쳤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감정적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묶어서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 묶어서 사과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회의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우원식 위원님의 개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봤었을 때, 배재정 위원님이나 김태년 위원님이나 또 우원식 위원님이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내용을 더 읽어 보시면 해명이 좀 필요하다, 그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과말씀으로 보기에는 좀 뭐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분의 얘기 중에 분명하게 허위사실에 가까운 것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가 원활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사과말씀을 요청한 것이 그렇게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동열 위원**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보니까

교학사에는 없더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우원식 위원**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교학사 교과서를 너무 과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 얘기가 있는 액면 그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친일 문제가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적을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바리케이드 치고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염동열 위원**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학사가 무엇을 그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부적절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깔아뭉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틀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새누리당은 이미 상처를 받았고 또 교학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하실 분은 사과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여기 말씀을 ‘특히 이것은 배재정 위원님이나 우원식 위원님이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김태년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등등’ 하면서 사과하라고 그랬으면 저보고 사과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렸으니까 그것을 지적해 주는데 뭐가 문제지요?

○**염동열 위원**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위원장 신학용** 두 분 이렇게 논쟁이 되어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데……

○**우원식 위원** 맞선 상황이 아니고 사실이……

○**위원장 신학용** 이 상황에서 양쪽 다 이야기……

○**염동열 위원** 뭐가 사실입니까? 우원식 위원님, 뭐가 사실이에요?

○**위원장 신학용** 염동열 위원님,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내용에 충분히 설명을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명으로, 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양쪽 다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쟁은 이것으로 끝내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둘 사이의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의뢰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논쟁은 여기서 그만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참으로 착잡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를 둘러싸고 이렇게 논쟁이 여야 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저는…… 중북의 반대말이 친일이 아니잖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중북 반대말이 친일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중북을 반대하는 친일은 팬찮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중복적 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고치면 될 일이고요. 친일적 요인들이 있으면 그것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친일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기하는데 왜 중북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바리케이드 치고 보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기할 것 있으면 제기해서 가지고 같이 ‘그건 고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대안교과서를 감수했느냐는 윤관석 위원 질의에 유영익 위원장께서 ‘19세기 후반부터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감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대안교과서…… 예.

○우원식 위원 예컨대 ‘대안교과서 객관적으로 보느냐?’ 그랬더니 ‘그 감수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전공한 분야에 대한 감수는 최대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예,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대한민국 건국 과정까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좀 보시지요. 좀 켜 주세요.

어디 먼 데 있는 것 아니고요. 대안교과서 맨 뒷장에 있는 겁니다. 이 교과서 감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까는 보니까 대안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셨냐면 “이 책은 국내 학계의 최첨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이것 유영익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께서 추천 글에 쓴 겁니다—한국 근현대사이다. 종래 역사교과서와 개설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내용과 체제를 갖추고 있

다. 한국의 근현대 교육은 물론 이 연구에 충격적인 파장을 일으킬 이정표적인 작품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역사서를 갈망해 온 독자에게서 환호와 탄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환호와 탄성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추천하는 분이 교과서가 뭐가 좀 부족해서 채택을 안 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지요.

그런데 34쪽에 보니까 ‘민왕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민왕후 그 다음에는 ‘흔히 민비라 불린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감수했던 그 기간들입니다.

민왕후라는 말을 씁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몇몇 교수님들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통 우리나라 국민이 민비라고 부릅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과거에 죽 그렇게 썼습니다.

○우원식 위원 명성황후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서?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명성황후라는 명칭은 아마 한 2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다 민비라고 썼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국사편찬위원장께서는 20년 후에 역사 공부 안 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현재는 명성황후로……

○우원식 위원 민왕후라는 말은 국민들한테 쓰여지지도 않는 말이고 거기에다가 명성황후라고 썼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민비라고 불렀다’ ‘그런 사관에 그게 많이 회자되긴 했다’ 이렇게 썼다면 모르겠는데 민왕후라고 썼어요. 그게 감수가 잘된 겁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것은 제 생각에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위원 잘했다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안 쓴 것은 잘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1898년……

○우원식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20년 전부터 국민 대다수에게 쓰여졌던 명성황후라는 말을 안 쓰고 민왕후라고 쓴 것은 잘했

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게 왜 그렇게 되나 하면 말이지요.

○우원식 위원 아니, 잘했나…… 지금 잘했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게 일제강점기 땀에 이때는 조선총독부를 세워서 우리를 식민통치했고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수탈해 갔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수탈경제를 구축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원식 위원 짧게요.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19세기 말하고 미국에서의 독립운동하고 건국기 세 부분을 제가 감수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또 “904년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으며 그 결과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것은 제가 다른 시대는……

○우원식 위원 그러면 ‘환호를 부를 만한 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83쪽, 식민지, 그러니까 식민지 체제였지요. 여기에 “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적자 구조였으며 총독부는 일본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웠다.”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일제시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하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원식 위원 그러면 ‘역사서를 갈망해 온 독자에게 환호와 탄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요, ‘내가 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역사서 전

체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장까지 올라오신 고매한 역사학자께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는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답하겠지요.

“민사령은 일제가 한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공포하였지만 한국인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하였다. 이처럼 민사령을 통해 한국인도 근대적 사권의 주체가 되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일제시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책에다가 이렇게 추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게 전형적인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에다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역사서를 갈망하는 독자에게 환호와 탄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썼어요, 이 뒤에다가.

그다음 볼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우원식 위원 미얀마 전선에서 미군의 포로가 된 한국 여성 위안부에 대해서 “1942년 5월 상순 일본인 대리업자가 위안봉사를 시킬 한국인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했고, 꼬임에 넘어가서 한국 여성이 해외 취업에 나섰고 몇백 엔의 전대금을 받았고 이들 대부분은 무지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이었다. 대개 800명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영훈 교수보고 이 책은 대안교과서니까……

○우원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천서 쓰지 말았어야지요. 이 추천서 쓴 것에 대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30년대부터 이루어진 이 많은 정신대에 대해서 42년에 그리고 일본 국가의 군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를 마치 대리업자가 장사하느라고 한 것인 양 이렇게 쓴 교과서에 대해서, 그것도 이 책 추천의 첫 번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호와 탄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쓰지 말았어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선불리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대안교과서기 때문에 정식 교과서가 되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문제는 이것은 제가 읽어 드린, 좀 더 있습니다만 이런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사관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책에 대해서 국사편찬 위원장이라는 분이…… 물론 국사편찬위원장 전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역사서를 갈망해 온 독자에게서 환호와 탄성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극찬을 한 그런 분이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퇴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은 그런 허무맹랑한 식민지 근대화를 찬양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장관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신학용** 예,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물어봤으니 답변 좀……

○**위원장 신학용** 장관한테요?

○**우원식 위원** 예.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유영익 위원장님께서 쓰신 다른 글을 보면 명백하게 ‘식민지 근대화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거기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글로 인해서 유영익 위원장님이 식민지 근대화를 옹호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원식 위원** 장관님,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글 저런 글 처신에 따라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명백하게 써 놨는데 그것 아니라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추천하신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원식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제가 다른 글에서, 학술적인 글에서 ‘근대화 식민지론은 아주 잘못된 이론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론이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신

것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영익 위원장님이 결코 식민지 근대화를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밖에 안 남았네요.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분들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앞에 여야 위원님들 간에 논박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장관님, 한국현대사학회가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없는 것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

○**위원장 신학용** 답변 안 하세요?

○**김희정 위원** 아니요, 장관님,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한국현대사학회, 그러니까 교학사 집필진들이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없는 거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장관님께서, 지난번 제가 6월 14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질문을 드렸고 그때 없다고 정확하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없는 거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없습니다.

○**김희정 위원** 앞서 우원식 위원님하고 저희 열동열 위원님하고 논박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안교과서에 잘못 왜곡됐던 역사 인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대안교과서를 만들었던 한국현대사학회가 그대로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했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점을 열동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닌데 뭘 판 얘기를 해?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이런 사실이 있으셨던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역사는 왜 배우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역사는 지난 일의 잘잘못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한국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구절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와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검정기준에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계는 적절한가”라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4·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라는 집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교과서 예시를 한번 들겠습니다.

미래엔의 경우는 이 집필기준에 따라서 교과서 제목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 1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준비하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다, 군복을 벗은 군사정부가 탄생하다, 6·3 시위를 억압하고 한일협정을 체결하다,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 유신체제와 부마민주항쟁, 영구집권을 꾀한 유신체제, 유신 반대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유신체제 한계에 도달하다, 국민 저항에 스스로 붕괴된 유신체제, 5·18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 유신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다,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다시 등장한 군사정부,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그리고 권위주의를 탈피한 서민대통령’ 이렇게 제목이 뽑혀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계상 오늘날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어떤, 아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없이 정확하게 기술했다라고 보여지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과제입니다. “산업화를 통해서 이룩한 경제 발전의 성과와 과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해한다”라는 집필기준에 따라서 역시 미래엔 교과서가 제목을 뽑은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 빛과 그림자,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다, 제1·2차 석유파동과 경제위기, 고도성장의 혜택이 편중된다,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된다,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외환위기를 맞이하다, 외환위기 극복과 남겨진 고통,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한국경제, 산업화에 따른 변화와 그 문제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다, 도시빈민 문제가 발생하다, 시장개방과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 높은 교육열 과중한 교육비,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 경제민주화를 모색하다, 그리고 1960년과 70년대는 고립과 낙후를 초래한 자립경제, 1980년대 이후 개방과 도발의 위태로운 줄타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나라 산업화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교과서의 구체적인 자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민주화를 기술하게 한 집필기준과 산업화를 기술하게 한 집필기준에 따른 이 교과서 제목을 보면 어디에도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 학생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정말 피로 얼룩지고 오로지 부패와 부정만 있었고 산업화는 오로지 그림자만을 만든 그런 나라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정기준인 단원의 전개 및 구성 체계에 있어서 아주 편향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교과서도 당연히 하나하나의 자구 수정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틀에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적 여유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런 부분까지 손대기는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위원** 아무튼 절대로 역사를 배운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역사교과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희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학용 됩니까?

○우원식 위원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의사진행발언이요?

○우원식 위원 예,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우원식 위원 김희정 위원님께서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대안교과서가 한국현대사학회가 관여한 게 아닌데 우원식 위원이 현대사학회가 만든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대안교과서, 뉴라이트 학자들이 발간했던 대안교과서에서 그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안교과서를 현대사학회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없었을 뿐더러 대안교과서를 주도적으로 만든 이명희 교수는 2011년에 현대사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친 분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어요?

○김희정 위원 제가 답을 할까요?

○염동열 위원 교학사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지, 내용을.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희정 위원님은 영 딴 얘기로, 틀린 얘기를 또 얘기해서 틀렸고요. 찾아볼 수 없는 건 맞는데 제가 교학사에 그게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염동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찾아보니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셨지. 내가 얘기한 게 교학사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안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교학사의 교과서도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가 틀렸어요?

○염동열 위원 교학사에 찾아봐도 없더라는 얘기……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염동열 위원 여기서 끝내시자고요, 큰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장 신학용 염동열 위원님 또 우원식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한 얘기는 자꾸 말꼬리보다는 사실관계 확인하는 걸로

좀 꼭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얘기한 게……

○우원식 위원 아니, 말꼬리가 아니고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지적을 하나니까 그렇지요.

○도종환 위원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찾아보니까요, 한국현대사학회 관련 분 네 분이 대안교과서 집필진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용직 주익종 김중석 박효중, 한 분은 총무이사 김용직……

○김희정 위원 그분들이 교학사 집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데는 교학사 집필자와 대안교과서 집필자가 같은 분으로 혼동되게 말씀하셨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원식 위원 계속 틀린 얘기를 해.

○박흥근 위원 아까 여쭙 봤을 때는 대안교과서 하고 현대사학회를 여쭙 보신 거잖아요?

○도종환 위원 예, 그렇게 여쭙 보셨습니다.

○김희정 위원 교과서 집필을 했던……

○위원장 신학용 대안교과서 집필……

○유은혜 위원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김희정 위원 교학사 교과서 집필을 했던……

○도종환 위원 대안교과서 집필을 했던…… 대안 집필을 했던 사람들이 현대사학회하고 관련이 있냐고 장관께 여쭙 보시지 않으셨어요?

○김희정 위원 예, 같은 분이냐고요.

○도종환 위원 네 분이 있는데요, 지금 확인되는 것만 해도.

○위원장 신학용 ‘교학사 집필진이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장관께 여쭙 본 게 그거 아니에요?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고 답을 들었다고요.

○우원식 위원 했습니까?

○김희정 위원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어요.

○도종환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는 없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확인해 봤는데 네 명이나 있는데요?

○위원장 신학용 도종환 위원님, 교학사 집필진 6명 중에 대안교과서 집필자가 있습니까?

○김희정 위원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박흥근 위원 아까 질문이 그게 아니었다니까?

○우원식 위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도종환 위원** 장관께 질문했던 게 있었잖아요. 현대사학회……

○**위원장 신학용** 아니, 지금 정확히 김희정 간사가 물어본 것은 교학사 집필진 6인 중에……

○**우원식 위원** 아니, 그건 지금 한 얘기고요.

○**유기흥 위원** 대안교과서가 현대사학회의 전신이에요, 그 멤버들이 그쪽으로 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연관성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원식 위원** 그리고 아까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대안교과서에 현대사학회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기흥 위원** 위원장님, 질의 계속하시지요.

○**위원장 신학용**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유은혜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회의 시작하고 한 10시간 이상 있다가 지금 첫 질의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1일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대안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다른 교과서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위원** 대안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은혜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단 집필자들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저희는 대안교과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은혜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 대안교과서 혹시 보셨습니까, 장관님? 교과서포럼에서 만든 대안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교학사 교과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은혜 위원** 제가 장관님 답변을 그렇게 들었을 때는 장관님께서 마치 대안교과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두 교과서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세요.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이걸 지적한 적이 있었는

데요. 2011년도에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있었지요, 현대사학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억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은혜 위원** 그중의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첫 번째, 국가기관이나 법률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일제강점’이라는 표현 대신에 ‘일제시기의 자본주의 성장 과정’ 이렇게 바꾸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편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를 ‘일제시기의 자본주의 성장과정’ 이렇게 바꾸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수용 불가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 이것도 ‘일제시기의 자본주의 성장과정’ 이렇게 바꾸자는 것도 수용 불가였습니다. 장관님 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알기로 교과서포럼을 만들었던 분들이 현대사학회 출신들이셨고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과서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요, 유영익 위원장님께서…… 제일 마지막 글을 먼저 보여 주세요.

엇그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기 보이시지요? “앞으로 누군가에 의해 진짜 만족스러운 새로운 근현대사 교과서가 제작·출판되려면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할 터인데 그 사이에 교과서포럼 같은 단체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을 일선 교사들에게 권장할 것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시대정신’ 2006년 여름호 대담에서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가운데 부분에……

○**유은혜 위원**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대담에 죽 대답하신 답변 내용입니다.

지금 교학사 교과서는요 어느 날 집필진들이 모여서 이런 걸 만든 것이 아니라 현대사학회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근대화론적 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대안교과서라는 이 교과서를 만들고 이 교과서의 내용들을 거의 동일한 관점과 거의 베껴 오다시피 한 내용들로 이 교과서를

만든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체계만 다를 뿐이지 대안교과서에서 ‘시장경제의 기반 형성, 식민지의 경제 개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은 제목을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경제생활의 변화’라고만 바꾸었고요.

“일제시기에 시장경제의 기반이 형성되고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됐다.” 즉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기조는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경제 수탈 이런 것도 피해는 그냥 사족처럼 달아 뒀고요. 이 대안교과서에 나와 있던 수치, 그래프 그대로 인용하면서 쌀 수탈한 것을 쌀 수출로, 경제 수탈한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경제 수탈되어서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겨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을 ‘농업 이민’ ‘노동 이민’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지만 대안교과서하고 교학사 교과서가 다른 게 있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방식이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대안교과서에서 ‘시간 사용의 합리화, 생활 습관의 개선, 근대 사회의 규율 내면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쓰는 대신에 신문 기사를 인용한 다음에 ‘생각해 보기’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제에 의해 시간 개념을 갖게 됨으로써 근대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교과서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가장 경악했던 것 중 하나가 토지조사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일제의 우리 경제 수탈 정책인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 근대적 토지제도과 조세제도 형성 등 근대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서술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대안교과서에 나온 다음에.

그런데 이 부분을 교학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했는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조사사업이 식민지 지배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도록 지침 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탈이 아니라 쌀 수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할 때는…… 대안교과서하고, 교학사 교과서에서 대안교과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술했거나 표현이나 체계만 바꾸었을 뿐이지 그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 서술된 교학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면 대안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대안교과서는 직접 읽어본 적은 없는데요……

○**유은혜 위원** 대안교과서가 직접 우리 학교 현장에 쓰이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사학회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검정 승인을 요청하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필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편에서 집필 기준에 의해서 수용 불가했던 내용들, 대안교과서에 적혀 있는, 기술된 내용들을 국편에서 바로 수용 불가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내용들을 교학사 교과서에서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실제로 제가 교학사 교과서 직접 다 읽었는데요. 거기에 근대화 식민지론에 부합하지 않게 일제가 수탈하고 굉장히 억압했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해 놓고 그러면서 저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근대화 식민지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저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관이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기술이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교과서 실제 내용을 보면 일제 시대에 일제의 수탈이 굉장히 심했고 억압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서로 다른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정답을 택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역사 시험에, 우리 수능시험에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결과가 쌀 수탈이었냐, 수출이었냐?’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답이 2개씩 나올 수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가지고서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가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건 오해가 아니라요, 그런 인식하에서 작성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저희가 교과서를 검정을 하면서 어떤 인식하에서 했다 이런 것까지 추정하고 이래 가지고 검정을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유은혜 위원 중요하지요. 사실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기술된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질의답변에서 과정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윤관석입니다.

저는 10시간 한 10분 만에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먼저 유영익 위원장께 질의하고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야당 위원들이 유영익 위원장 임명 철회하라고 청와대 앞에 가서 서한 전달하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언론보도 보셨어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것은……

○윤관석 위원 보셨냐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비슷한 걸 본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렇게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고민 좀 안 하셨나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

○윤관석 위원 고민 없으셨나 보군요.

사진을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지금 본인이지요, 위원장님?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윤관석 위원 당사자이지지요, 안경은 벗으셨지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맞습니다.

○윤관석 위원 2006년도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교과서포럼 6차 심포지엄이 있었고 이때 사회를 맡으셨지요, 그렇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닙니다. 사회를 맡은 게 아니라 토론자로……

○윤관석 위원 토론자로 나오셨습니까? 심포지엄 주제가 뭐였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지금……

○윤관석 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실상 4·19를 학생운동으로, 5·16은 혁명으로 평가하는 것을 논의하려고 했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그때 토론……

○윤관석 위원 그래서 4·19 관련 유족과 단체들이 항의해서 몸싸움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유영익 위원장께서 가운데 딱 정면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가운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윤관석 위원 하여튼 이 사진에서는 가운데잖아요, 지금. 이렇게 거센 항의를 받아서 그날 많이 혼도 나시고 했는데 자, 이려고 나서 그날 토론회가 결국은 행사가 취소됐지요. 그렇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해 12월 14일 교과서포럼에서, 이 행사를 주최했던 단체입니다. 4·19 관련 단체와 4·19 혁명 정신을 존중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지요? 결국 입장을 꼬리를 내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 성명서 발표문 기억 안 나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윤관석 위원 기억이 안 나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윤관석 위원 어떤 것은 기억이 나고 어떤 건 안 나시고……

자, 한동대 강의는 하지 않으셨다고 어저께 얘기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교과서로 교재를 채택해서?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
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강의계획서까지
다 제출하셨더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에 대해서 비판하고 학교 측도…… 학생들이 대
자보를 여러 차례 붙였습니다, 한동대 7대 교수
로. 부교재로 채택이 됐고 계획서까지 제출했다
가 하도 학생들이 반대해 논란이 되니까 철회하
신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교과서를 하여튼
제가 쓰지는 않았습
니다.

○**윤관석 위원** 실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본인
의 의지는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우려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
처럼 어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독재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등급이 있겠지요.

○**윤관석 위원** 독재에 등급이 있습니까?

여기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희 군부시절은 군부독재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

○**윤관석 위원** 간단한 건데, 생각하실 필요 없
을 것 같은데요.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
리 유영익 위원장께서 쓰신 책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본문 중에 보면 519페이
지에 “이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즉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독재는—이승만입니다—박정희 및
전두환 대통령 등의 군사독재에 비해 훨씬 더 민
주적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 본인이 쓰신
것 맞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윤관석 위원** 장관님, 여기 보면 군부독재라고
썼네요, 유영익 위원장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섭섭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윤관석 위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 책을 갖
다 읽으신 분이 있으면 섭섭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승만 씨는 덜 독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군부독재다, 독재에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를 제
가 처음 들어 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군부
독재가 더 심했다는 얘가지요, 이 얘기에 의하
면?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

○**윤관석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쓴 것 그
대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윤관석 위원** 이런 식의 역사서를 기술하는 것
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아까도 저희 야당 위원들이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항의서한 전달하고 왔는데
왜 맡으셨습니까, 이런 많은 반대와 우려를 무릅
쓰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마디. 대안교과서
같은 것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관철시키려고 말
으신 겁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사 사료를 편찬하는 곳
으로 알고 현대사 편찬사업을 좀 해 보려고……

○**윤관석 위원** 자,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차라
리 갖고 계신 소신과 역사관에 기초해서 지속적
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고 또
독재에 등급도 나누시고 하면서 활동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소신 있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사퇴하실 용
의가 있다는 건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사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작업에도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그 작업은 또 하시겠?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것은 아니에요, 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윤관석 위원** 관심만 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지요. 관심은 있
다고 말씀……

○**윤관석 위원** 그러면 자리도 가지시고 소신은
소신대로 다르게 또 만들어 가시고요? 그러려고
국사편찬위원장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지금 모르세요, 전공하신 분이?
그게 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걸?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역사……

○**윤관석 위원** 아니, ‘내가 소신 있게 한번 차라리 역사 문제를 재해석하고 내 생각에 맞게 활동하겠다.’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하면 역사학자로서 사퇴하고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생각은 있는데 편찬위원장 자리는 오른 자리니까 직무는 수행하고 그건 따로 생각하면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롱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하여튼 편찬사업……

○**윤관석 위원**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분이, 지금 편향된 사관과 또 지금 그 생각도 여전히 유효하게 갖고 있는데 장관께서 보셨던, 아까 독재에 등급이 있다는 그런 자료 보여 드렸는데 이런 분이 과연 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은 임명권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니까 제가 의견만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왔고 지금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문위가 이렇게 정치 메가 이슈 다루는 위원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 어제도 질의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검정 합격 취소 문제 오전에도 많은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필자들의 내용증명 왜 공개를 안 하세요, 자료제출 안 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

○**윤관석 위원** 달라고 얘기는 해 봤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요청을 했는데……

○**윤관석 위원** 안 줍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윤관석 위원** 요청하신 근거 있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 가지고 오전회의 정회된 뒤에 요청을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내용증명 온 것을 왜 확보를 못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 집필진 사이의 개인적인 그런 소치가 되기 때문에……

○**윤관석 위원** 아니, 왜 장관께서…… 우리 민주당의 ‘을 지키기’라는 것은 있지만 왜 이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에 나서는 겁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진짜 검정 합격을 시킬 만한 건지 문제 제기된 걸 판단하는 겁니까, 지금? 일방적 편들기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키기로?

○**교육부장관 서남수** 검정 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윤관석 위원** 내용증명 하나도, 그걸 왜 장관께서 확보를 못 합니까? 우리 교과부의 수장께서 그렇게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주어진 권한을 일부러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 권한 밖의 문제입니다. 민간 출판사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일방적으로 내놔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제출을 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했는데 곤란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시다.

○**윤관석 위원** 당장 내용증명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정세균 위원** 금방 윤관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교학사에서 내용증명 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가요?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학사가 이번에 역사교과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관련되는 내용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지 않으면 우선 국론이 분열되고 이 문제가 계속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요, 첫째.

다음은 교학사의 경영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에도 부합하고 관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 세 분의 집필진도 사실은 잘못하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증명으로 보낸 세분 집필진의 서한 내용이 밝혀져야 그래야 이 문제가 매듭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께 질문 좀 하겠어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위안부 할머니 문제, 일본이 사과논커녕 계속 그것을 모욕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역사 인식을 다르게 하고 과거 상태를 덧나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힘들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건 아주 적절한 말 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정세균 위원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2008년도에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에 감수를 하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여기 감수하신 것으로 제일 위어나오잖아요? 감수를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감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다 일별하시고 그 내용에 큰 이의가 없다는 뜻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부분적으로 감수했습니다. 그날 하루의 시간을 썼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전부를 다 정독을 철저히 못 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명 전혀 안 보셨다 하더라도 ‘감수 유영익’ 이렇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통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다고……

○정세균 위원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영훈 교수가 그 책을 쓰신 다음에 감수 좀 봐 달라고 해서 제가 하루 동안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부분만 한다 그래놓고 보니까 위안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영훈 교수보고 “이건 대안교과서인데 앞으로 이게 교과서가 되려면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세미나를 하나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내용을 고치기 시작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설명을 제한하시려는 이유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동원된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 안하시는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이 책에 추천의 글을 쓰셨지요? 추천의 글은 누가 쓰셨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글썬,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위원 이 추천의 글을 쓰신 게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정세균 위원 이 추천의 글을 보고, 또 감수하셨다는 것을 보면 만약에 유영익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했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국사편찬위원장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추천사가 적절치 못했고 또 그때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셨다니깐 그것 가지고 더 질문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매듭을 짓겠는데요.

국사편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께서는 그 국사편찬위원장이 마땅히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중립성이겠지요, 균형 감각.

○정세균 위원 그렇지요? 균형감과 중립성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국사편찬위원장이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국사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서 기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지요.

○정세균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그리고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간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나 서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유명익 위원장께서는 상당히 한쪽에 치우친 분이요 균형감각이나 중립성이 부족한 분이요’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위원장님께서 오랫동안 학술 활동을 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 축적된 지금까지의 성과물의 결과로 ‘이분은 한쪽에 좀 치우친 분이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그 생각을 바꿔 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제가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한국사 시민강좌’라는 잡지를 동료 교수들과 꾸준히 출판해 왔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저와 편집진의 역사관을 잘 대변하는 잡지입니다.

그중의 47집에, 2010년에 제가 책임 편집을 한 ‘한국사 시민강좌’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12인, 열두 사람을 골라서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열두 사람을 고를 때 이동휘 씨, 그다음에 이승만,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박용만, 조만식, 여운형, 조소앙, 이청천, 김두봉, 김원봉, 이 열두 분을 골라서 편집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저는 사실 역사학회 회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학계에서 가장 중립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학자입니다. 이것도 독립운동……

○정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리고 접수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언론이나 또 밖에서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유명익 교수님을 중상모략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의 그동안의 학문적 업적이라든가 교육 활동을 확실히 잘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런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의 경우에 제가 무슨 이승만 예찬이라든가 친일적인 식민지 근대화라고 한다든가 그런 평을 한 신문들, 기자들은 저하고 한 번도 인

터뷰한 일도 없고 제 글을 진지하게 읽어 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세균 위원 그러시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오해를 바꾸시든지……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예,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수행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있는 한 위원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숙고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임명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으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아직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예, 비서관을 통해서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니다.

○정세균 위원 임명받으시고 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신 적 없습니까, 아직?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아직 못 만났습니다.

○정세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신데 안타깝지만 오늘 현안질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교육부장관의 태도 또 국감 중인 채택, 핵심적인 중인 채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 또 유명익 위원장님의 동문서답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사실상 파행을 겪었다고 보고 국감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할지를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명익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 4·19 민주이념의 정신은 반독재 민주정신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4·19 혁명으로 몰려난 독재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정세균 대표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인데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또 실증적이기까지 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말을 자꾸 바꾸시고 하는 것은 실증적인가 하는 점 그리고 수십 년 학자를 하셨다는 분이 감수라고 해 놓고…… 일부 감수라고 했어야지요. 엄격한 그런 잣대가 왜 대안교과서에는 전달 안 됐는지 저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분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실증적인 분인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 나중에 시간에서 좀 빼 주십시오. 왜 소리가 안 나와요?

“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를 알고 계십니까, 유영익 위원장님?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지는 않습니다.

○**유기홍 위원** 뉴데일이라는 매체가 보시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체라고 보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이승만을 극도로 예찬하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으시니까 뉴데일리의 이승만연구소 이승만포럼에 가서 강의하신 거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승만을 극도로 예찬하는 단체하고 철학이 같으신 분이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그 발표에서 이승만은 업적이 공이 7, 과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뉴데일리에서 그다음부터 저를 냉대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영상이 계속 안 나오나요?

(동영상 상영)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관인가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기홍 위원**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관을 가진 분으로 보여지십니까? 그 발언으로 보여지

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

○**유기홍 위원** 대답하세요.

○**김희정 위원** 편집본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지, 발췌가 아니라.

○**金世淵 委員** 발췌를……

○**유기홍 위원** 또 악마의 편집 얘기입니까?

○**金世淵 委員**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전체를 다 봐야지요.

○**金世淵 委員** 제일 문제된 부분만 지금……

○**유기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말씀하셨던 모든 문제들이 같은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전체 원고를 나중에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심한 부분을 해서 했던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전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보신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관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유기홍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45년 역사를 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아니,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지요. ‘나는 이승만주의자다. 나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이승만이 정말 우리 역사에 이런 DNA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저런 역사관을 가진 학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부를 편집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승만의 과를 얘기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이분이 강연했던 것을 여기서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원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 보여드릴 텐데……

유영익 위원장님, 아직도 본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실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저는 이승만에 관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가 공 7, 과 3의……

○유기홍 위원 저는 오늘 발언 속에서 또 대단히 위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은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를 다 담당하셔야 될 분입니다. 제가 보는 한에서는 고대사하고 중세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고종황제 투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분이 역사, 현대사 자료를 편찬하겠다는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발표하시고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분이 지금 동경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이것,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역사관의 편향도 문제지만 이분이 정말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대사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상 이승만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이분이 처음으로 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이승만연구소’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현대사연구회’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위원장님, 현대사의 사료를 편찬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이승만의 자료를 편찬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 부분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가로서는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는 나이가 지금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현대사의 통치자들의 주요 기록을 정리하는 기초를 닦아 나가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기홍 위원 여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대중 대통령 하나를 끼워 주는 것으로 공정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 사람을 꼽는 데서 독재자 두 사람을 언급해 놓고 공정한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이제 겨우 마쳤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배재정 위원 예.

○위원장 신학용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배재정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사실 충격을 받았습시다.

아까 유기홍 간사께서 강연 자료를 보여 주시는데 새누리당 위원께서 이구동성으로 악마의 편집을 운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 아마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까지 포함해서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앞뒤 다 잘라먹은 악마의 편집적인 그런 공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를 떠올린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해당 당사자가 어떤 발언들을 하셨고 어떤 글을 남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같이 검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분의 생각을 검증하고 이분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해 왔는데 유독 지금 유영익 위원장에 대한, 게다가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말씀을 보여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상임위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아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신상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부분은 그 발언의 서두에 있는 부분을 편집 없이 떼어내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체의 편집, 가감 없이 그 답변을 그대로 보여 드린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악마적으로 편집되었다는 확증도 없이 그런 표현을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료 위원들 간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앞으로는 우리 서로 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조금 더 지양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양

당에 똑같이 걸려 있는 문제로 저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양당 모두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뭐가 똑같이 걸려 있어요?

○**위원장 신학용** 아니, 양쪽에서 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金世淵 委員** 방금 신상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신상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동료 위원님의 발언 과정에서 앞서 회의 초반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잠시 오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 새누리당의 위원들끼리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취지는 앞서 답변 시에 유영익 위원장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7, 과가 3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것이 뉴데일리와와의 관계가 경색된 이유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독재가 당시에 필요악이었고 과가 9…… 그때는 독재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공이 9나 10이지 유영익 위원장의 판단은 그것이 독재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승만에게 과오가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국제관계의 틀을 제대로 형성을 한 기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던 점에서는 공이 7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맞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표현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새누리당이 이승만의 독재를 옹호한다거나 찬양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3·15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누구라도 그런 부분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가자는 것이 저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유기흥 위원**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金世淵 委員**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게 유영익 위원장이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는

데까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우선 김세연 위원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철회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또,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공과 과가 있지요. 공이 7이고 과가 3이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역사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독재를 용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승만 독재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과인 것입니다. 과도 잘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지요. 그런 점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의 인식은 매우 잘못되고 편향된 인식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신학용 위원장님께도, 오늘 죽 서로 논쟁이 있었습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여야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교훈으로 삼자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학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쪽에서 다 그렇다고 주장을 하니까……

○**우원식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을 왜 한쪽이 주장한다고……

○**위원장 신학용** 제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이쪽에서도 짚고 이쪽에서도 짚으니까 이번 기회로 앞으로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아무렇게나 주장해도 그러면 다 여야가 주장하면 여야가 똑같은 겁니까?

○**위원장 신학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잘 공평무사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모두 보충질의 다 하셔야 되겠지요?

○**배재정 위원** 당연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보충질의는 똑같습니다. 5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한 10분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1시16분 회의중지)

(2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5분을 초과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위원** 5분 후에 마이크 끄면 재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장관님, 우리 사관에 종북주의, 종북사관 이런 게 있습니까? 교과서에 또 융합주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론을 말씀하시고 교과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웃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선거 포스터, 김구 선생님의 선거 포스터 이렇게 나왔는데 선거 포스터를 작성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진을 잘못 찍은 사람 잘못입니까?

또 제가 가르쳤던 국어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 역사교과서에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시면서 한쪽 손을 들고 계시는 흑백사진이 자주 실리는데 고개 숙인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못 외우셔 가지고 보고 하시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진이 잘못입니까? 저는 혼란스러워요.

특히 교과서 말씀을 하시면서 장관님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대하는 내용 기술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오해될 만한 부분에 입각해서 기술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 기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이 건 부적절한 판단의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역사학자 말씀에 따르면 ‘교학사관 한국사 교과서가 오가잡탕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소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요.

오늘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저는

왜 이런 교과서가 가능했을까, 저는 정치 상황을 타고 급작스럽게 착근을 시도, 그것도 교과서를 통해서 시도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더욱더 굳어지는 생각인데요. ‘우리 역사에 대한 침공’이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05년 1월에 뉴라이트에서 교과서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당시에 고문이 유명익 교수였습니다. 국사 근현대사 그리고 경제교과서에 공격을 본격화했구요.

2007년 11월 뉴라이트가 주축이 되어서 아까 언급했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대표를 맡으셨던 분이 강영훈, 이인호, 박효종 세 분이었습니다. 현대사 학회 출신이 어느 분인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08년 3월 교과서포럼에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 수탈론을 부정했고 일본군 위안부를 미화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우상화, 박정희 찬양, 5·18 민주화운동 왜곡, 기독교 편향 이런 내용들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감수자는 유명익 교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추천 글과 교과서의 내용 중 몇몇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시면서도 추천 글은 그렇게 정말 찬양 일색의 추천 글을 쓰셨습니다. 저자는 이영훈, 김재호, 김용직, 주익중, 김일영, 김영호, 김광동, 김세중, 김종석, 전상인, 박효종, 김영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2008년 7월 23일 날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국제학술대회에서 유명익 연세대 당시 석좌교수께서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린 바 있습니다.

2008년 9월 금성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2011년 2월 국사편찬위원회 산하에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한국현대사학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디어 창립이 되었습니다. 회장에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상임고문에 유영익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현대사학회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수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국사편찬위원회는 2011년 7월 28일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거부의 내용과 수정의 내용을 기술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 당시에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당시 국가브랜드위원장의 임명을 놓고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도록 하는, 교과부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가 역사 교육과정을 확정해서 고시했습니다.

2012년 한중연에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변경을 했고 이 당시 이배용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장이 이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변경을 주도했습니다.

2013년 8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11년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 불가 의견을 냈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교학사본 교과서가 검정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7일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임명됐고 2013년 10월 1일 유영익 국편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역사 침공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께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학사판 한국사 검정 취소하셔야 되고 국편위원장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역사가 확립될 수 있고 우리가 후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에리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장관님, 위원장님, 차관님, 교육부 관계자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라는 것이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것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아마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정말 수면으로 나타난 그러한 여덟 가지 교과서에서의 문제점들, 오류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수정되어서 바람직한, 우리 세대들에게 정말 가장 정답에 가까운, 진실에 가까운 그러한 역사교과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편찬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 정말 연세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수락하셨을 때에는 제가 나이가 좀 어린 입장에서 봐도 계획이나 또는 어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뭘 어떻게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뭔가 기대와 계획과 어떤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지 그 자리가 탐나서 수락을 해서 가셨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편찬위원장을 수락하시면서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역사관이라든지 계획, 그런 꿈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해서 한번 위원님들 앞에서 죽 본인의 어떤 뜻을 말씀해 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수를 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자기나라 역사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없고요. 또 많은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아주 판단력도 빠르고 한 면이 있지만 한국사에 대해서만은 제가 보기에 치밀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지식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 학생들을, 항상 저는 대학에서 영어로도 강의하고 또 한국말로도 강의했는데 오히려 외국 학생들이 한국 역사를 더, 말하자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한국 역사를 판단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쓰여진 한국사 교과서가 국내에서 쓰여진 교과서보다 정치성이 훨씬 적기 때문

에 더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 아주 빛나는 업적을 달성하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등에서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국사계 분야에서는 지금 오히려, 특히 현대사에 있어서는 외국 학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개척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부터 한국사를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 민족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외국 학자들의 학설을 능가하는 그런 학설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국 역사를 정력적으로 연구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교육 여건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없어서 말이지요, 미국에 있는 학자들의 업적을 따라갈 그런 저작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현대사 자료를 많이 풍부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에서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능가하는 박사학위 논문이 많이 배출되게 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이승만연구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이승만연구소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현대사연구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현대사연구소를 정문연에 개설했기 때문에 이름을 현대한국학연구소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승만만 연구한 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연대를 떠나면서 연세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 덕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이름을 이승만연구원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여하튼 저는 한국에서 한국사만은, 한국사와 국어 이런 국학 면은 한국 사람이 주도권을 쥌 수 있도록 하는데 말하자면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지금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생겨서 전국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 유영익 위원장님을 청

와대에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유영익 위원장은 지금 교학사 문제로 온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여기에다가 정말 기름을 몇 드럼을 부은 것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관님 어떠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또 특히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이런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와중에 이승만주의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위원장님께……

○**김상희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여쭙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승만……

○**김상희 위원** 아니, 본인인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요. 시중의 평가를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시중의 평가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너무 적절치 않은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학계와 그리고 교육 현장과 정치권과 모든 부분이 다 지금 정말 핵폭탄이 던져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승만주의자로 다 알려져 있는 유영익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도대체가 국민을 무시하고 아예 소통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서는 설사 이런 임명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 전달이 왔을 때 저는 위원장님께서 고사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학문과 사상이나 그런 자유는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와중에 위원장 하겠다고 나서시는 것은 너무나 적절치 않지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충고가 아니라요,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8종까지 포함해서 교육부에 TF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선생님들하고 교육부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일선 교사들이 TF 꾸려 가지고 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단 못 주시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만 하더라도 자꾸 명단을 밝혀라 이렇게 하시니까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구성이 잘 안 되고……

○**김상희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 못 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월 중순까지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너무나 무책임하십니다,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교학사가 이 교과서 사태가 터졌을 때 포기하려고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교학사가 발행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얘기가 한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김무성 의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학사가 발행 포기까지 갔는데 학자들의 설득으로 용기를 내서 하게 됐다 그런데 학자들의 설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교육부와 또 정치권의 설득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교학사와 교육부는 정말 독특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문우회 회원이셨지요, 장관님께서도?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우회는 교육부 전현직 관료 모임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교학사하고 아주 대단한 유착관계에 있습니다. 문우회는 교학사에서 출판한 ‘교육법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억 4000만 원어치를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에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학사가 사실상 2대 주주인 용옥장학재단의 전체 이사 10명 중 4명이 문교부 편수국 출신의 인사와 여당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학사하고 문우회는 ‘교육법전’ ‘한국사대사전’의 사업 파트너고 각종 협찬과 협찬금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직원공제회하고는 또 상조사업의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학사가 출판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부가 교학사 지키기를,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에…… 오히려 거꾸로 교학사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오히려 압력을 넣어서 교학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7종을 끌어들어서 8종까지 수정권고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학사의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교육부와 그리고 이런 뉴라이트 학자들의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이 지금의 현 사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장관이 한몫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사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문우회라는 데도 회원으로 있어도 1년에 한번 그냥 송년회 하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우회가 교

학사에서 판매한 ‘교육법전’ 1억 4000만 원어치를 교육부에 판매를 해 줘니까?

○위원장 신학용 김상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건 옛날부터 교육법전이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법전을 산 것이지 무슨 교학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위원장 신학용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문우회와 교학사는 협찬관계를 가져왔고요. 문우회의 전현직 관료들이 교육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로비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문우회가 교육부에 거의 무슨 로비 같은 것 할 만한 이유도 없고 역량도 없습니다.

.....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왜 제가 손을 들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위원장 신학용 아니,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또?

○안민석 위원 지금 시간이 10시인데요. 제가 아까 세 시간 전에 양 간사님께 증인 합의를 하시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세 시간을 관찰했는데 두 간사님이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하고 두 간사 사이에 증인채택 이것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인감사 마지막 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들이 세 분이 되지 않았었나,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야합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양 간사께 주문을 하셔야 돼요. ‘두 간사는 나가라, 나가서 합의를 하고 와라’ 두 간사 없이도 지금 우리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간사님께 합의하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12시 넘기 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틀리면 양보를 조금 하세요.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요.

○유기흥 위원 위원장님!

○안민석 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서 합의를 해 오라고 그러세요. 왜 간사 두 분이 중요한 걸 합의도 안 하면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유기흥 위원 위원장님, 이 발언에 대해서는, 같은 당의 동료 위원이지만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각각, 여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의논을 드려 왔고 그런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무슨 마치 밀약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야당 간사 뒤통수를 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민석 위원님, 이것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안민석 위원 사과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과할 테니까 두 간사님 나가셔서 합의를 하고 오세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정감사 하면서 증인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상식의 문제지요.

○위원장 신학용 안민석 위원도 아마 간사로서……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기흥 위원 핵심적인 증인을 지금 여당에서 안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잘 아시겠지만, 안 하시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안민석 위원 아니, 오늘 넘기면 못 하는 건데 지금 두 분이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합의하실 노력이라도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걸 주문을 하셔야지요, 강력하게.

○위원장 신학용 두 분이 복안이 있으시겠지요.

○안민석 위원 무슨 복안입니까? 12시가 지나면 못 하지 않습니까, 14일 날?

제 말씀이 부당하거나 과하면 제가 얼마든지 사과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증인 채택을 합의를 못 하고서 양 간사님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싸움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가 양보를 하시든지 합의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신학용 그런 생각은 저도 다 이야기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안민석 위원 지금 두 분 나가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위원장 신학용** 예,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여야 간사님 한번 더 숙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께서 2011년 7월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 내용 중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서 작성, 고시하라, 집필규정을 한 것 이 부분 들으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들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친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국사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민주주의를 보면 보통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다 혼용해서 앞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아까 이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정리한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성출판사 368쪽에 보면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수립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수립되다’ 그러면……

장관님, 한반도에 그 당시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몇 개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하나입니다.

○**강은희 위원** 하나인데 지금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북한과 남한의 정부를 대등하게 해서 그 당시에 유엔이 북한과 남한의 2개의 정부를 마치 동시에 승인한 듯한 이러한 제목, 아예 큰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검토하시고 꼭 수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면 ‘자유가 좋아 울리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 해서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에 관여한 이런 것보다는 독재정치를 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407쪽을 보면 ‘북한 세습체제를 구축하다’ 각각 큰 제목은 385쪽과 407쪽처럼 객관적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그다음 작은 제목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의 성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5쪽에는 남한의 이승만 정부를 ‘독재정치’라고 일컫고, 407쪽에는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독재인지는 장관님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명백합니다.

○**강은희 위원** 실제 이승만 정부를 독재정치로 매도하고 김일성은 유일지배체제가 성립되었다며, 이걸 보고 있으면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독재자고 김일성은 유일지배체제의 수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일성이 확립한 체제는 1인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뿌리를 교묘하게 흔드는 서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은희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남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388쪽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성립과 3선 개헌’ 해서 “개헌안을 국회에서 편법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86쪽 “4·19 혁명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리고 “유신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이것 3개만 보면, 이제 부분만 보면 별문제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407쪽 북한 체제 부분입니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성립’이라고 하고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제를 신설하였다.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408쪽에 ‘김정일 후계체제의 등장과 3대 세습’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다.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유훈

통치를 떠다가 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다시 취임 하였다.” 앞 페이지와 뒤 페이지의 용어 차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좀 편향성이 느껴집니다.

○**강은희 위원** 앞 페이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는 편법, 부정, 권력, 집권세력, 방황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북한 체제는 주석제 신설, 사람 중심 세계관, 인간 중심 철학사상, 후계체계 공식화, 취임, 헌법 개정,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잠깐만 시간 좀, 이것 뭘 바꿔야 되는 모양이에요.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다음……

○**김태년 위원** 아니, 제가 하는데 PPT 자료가……

수고 많으십니다.

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요.

장관께 질의합니다.

지금도 내용만 맞으면 출처가 인터넷이나 포털이나 상관없다, 교과서는 논문 수준으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팬클럽은 취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단 저희 교과서 관련 내용 중의 필요한 자료는 여러 출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포털에서 막 긁어다 써도 된다 이 말이지요?

인터넷에도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사이트 주소, 원 주소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다른 교과서들 한번 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른 교과서들은 인터넷에서 자료 인용을 하더라도 사이트 주소를 다 명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전부 다 구글, 네이버, 다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요? 확인했지요?

이건 상식 아닌가요? 장관님, 이건 상식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긁어 오더라도 다 이것 해 줘야 되잖아요, 원 사이트.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필요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야 정확하잖아요. 교과서의 생명은 정확성인데, 이래도 교학사 교과서 외부 사진 출처 문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 보지요.

저작권법 있잖아요. 교과서는 저작권료 정산 나중에 할 수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 사진들의 저작권료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인데 저작권료 누구한테 줘야 돼요? 다음하고 네이버 이런 데 줘야 됩니까? 구글에 줘야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것은 출판사하고 협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알아서 할 문제입니까?

넘겨 보세요.

고등학교 한국사 세부검정기준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40점이 배점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항목입니다.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항목인데 그중의 11번이에요. “11.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가 있어요.

다음, 그래서 채점표를 요구했어요. 당연히 공신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점수 못 받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채점표 안 주고 계세요.

검정 신청을 할 때 출처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출처 문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검정 신청할 때 목록입니다. 이게 목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스펙이나 공공기관 위탁할 때 요건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처표를 한번 잘 보시지요. 유의사항입니다.

검정 신청 시 제출서류예요. 여기 보면 “검정도서 심사본 내용의 근거 자료(사료, 사진, 그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넘겨 주세요.

“검정도서 심사본 내용의 근거 자료(교과별 각 10부)” “사료, 지도, 연표, 도표, 사진, 통계 등의

자료 출처, 자료 위치와 내용, 정확한 출처, 자료 이용 방식” 이걸 다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다음 넘겨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학술 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으로 제시하여 제출” 이게 있어요. 규정입니다. “학술 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 학술 논문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확 긁어다가 출처로 쓴다, 이것 논문으로 인정받습니까? 논문으로 인정받아요?

대학에 오래 계셨던 위원장님,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진이나 자료 그냥 확 긁어다가 논문 쓰면 그 논문 심사해서 통과시켜 줍니까? 안 되지요? 힘들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예.

○**김태년 위원** 어렵지요? 그러면 이것 위배한 거지요?

장관, 이것 위배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학술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으로 제시하여 제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보지요.

“저작권법에 따라서 모든 사진, 삽화 내용 등의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나와요.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에 준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막 긁어다 써라,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지요. “웹사이트를 안내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성을 띠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배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성을 띠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배제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예듀넷, 국제기구 이런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 지속된 공공기관 것만 갖다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업성 있는 홈페이지는 배제하라고 되어 있

고.

그러면 네이버, 다음, 구글 이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막 긁어다 써 버리면, 여기서 긁어다 썼으면 규정 위반 아닌가요? 상업성 있는 거잖아요, 그 포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규정 위반이잖아요. 규정을 위반했으면 아예 서류 심사를 할 때 결격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내가 만든 겁니까? 이것 공모할 때 ‘교과서 검정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출판사들한테 죽 안내서 제출할 때 ‘이런 이런 항목은 맞추고 이런 이런 점은 유의하라, 주의하라, 하지 마라, 배제하라’ 이것 교육부가 만든 것 아닙니까, 기준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 낼 때, 구매할 때 스펙 기준 정해 주잖아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선정에서 배제하잖아요.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 낼 때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아예 서류 심사 때 다 배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안 맞았잖아요. 애초에 모집요강 때, 이렇게 치면 모집요강에 안 맞은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해서 제출한 검정본에 대해서 그래서 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태년 위원**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심사를 했는데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규정에 안 맞는 것 심사를 했어요. 아예 서류심사에서 배제되어야 될 교과서를 심사를 한 거라니까요.

○**위원장 신학용**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金世淵 委員** 장관님, 차관님,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젠가 한번 치러야 할 홍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제대로 된 국가공동체를 우리가 계속 지속해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학사 교과서 죽이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죽이기의 모든 논점들이 저는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장관님 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2개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용 위원장, 김희정 간사와 사회교대)

○**金世淵 委員** 그러니까 저는 잣대를 하나로 가져가야지 이중 잣대를 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박정희 권위주의 시절에 통치 양상에 독재적인 측면이 있었던 부분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절대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후세가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똑같은 기준으로 북한 정권의 독재의 양상이 훨씬 더 심각하고 더 파괴적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지 어떻게 남북한을 다르게 접근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초기 부분을 이렇게 깎아 내려야만 하는지 저는 7종 교과서의 집필 관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상교육의 346페이지입니다.

해방 당시의 소련의 치스차코프 포고문과 맥아더 포고문을 비교해서 해 봤습니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 주었다.”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이게 ‘소련 극동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 제1호 1945년 8월 15일(추정)’ 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해 놓은 게 추정이라는 언제 발표한 지도 드러나지 않은 것을 교과서에 버젓이 실어 놓았는데 맥아더 포고령을 보시지요.

“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당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이 군정의 행정 문

서에 공식적인 아주 딱딱한 용어가 기술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모두 다 공개된 것과 소련 공산당이 소위 인민들에 대한 선전문을, 기관지에나 실을 법한 이런 포고문을 놓아둔 것을 수평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지, 만약에 트루먼 대통령이 8월 18일에 발표한 성명을 비교해서 실었다면 저는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트루먼 성명입니다.

“일본군의 항복은 평화를 사랑하는 영웅적 조선인민의 해방을 고하는 것이다. 이제 노예 상태는 끝났다. 한국이 자유 독립되어야 하고 위대한 건국이 이제 시작되었다. 태극기가 한반도에서 다시 휘날리게 됨을 기대하는 바이다.” 여기에 인민이라는 것은 아직 정부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플(peopl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해방 당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독재를 그렇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과연 김일성·김정일 독재에 대해서 입이라도 뺏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과 위원장님 각각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상당히 편향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金世淵 委員** 위원장님!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한국 역사학, 특히 현대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주 중후한, 굉장한 치밀한 듯한 아주 인상적인 저작을 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분의 학설을 많이 따랐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학자의 저작을 능가하는 진짜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 문제를 본 좋은 박사학위 논문과 저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사 자료를 편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저는 너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영어로 또 책이 하나 더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써 학문 활동은 끝냈고 그다음에 후세를 위해 가지고 브루스 커밍스를 능가하는 훌륭한 한국인의 현대사 전공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지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교사 3명이 수정을 거부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직은 저희가 수정 요청 단계에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신문에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수정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검정합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에 보면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피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영에 나와 있는 수정명령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수정권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실무적으로 작업을 해서 집필진 저자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출판사하고 저자들에게 그런 오류가 확인이 되면 그 오류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내용증명 보낸 내용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집필진 교사들이 수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잖습니까? 이러면 이게 명령 위반이 되어서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취소시킬 수 있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것은 집필진들 사이의 내부의 문제고요. 저희는 일단 집필진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출판사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렇게 수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전체 여섯 단원으로 한국사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대사 부분, 삼국시대 부분은 최희원 선생이 집필을 했고요. 고려 부분은 장세욱 선생이 집필을 했고요. 일제강점기는 김남수 선생이 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맨 마지막 단원은 권희영 교수가 집필을 했어요. 각각 다른데 어떻게 세 사람이 수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집필진들이 현대사 전공한 사람들이 고대사를 수정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것은 저희가 일단 출판사에다 그렇게 요청을 할 것이니까 집필진 내부에서 적절히 알아서 조치할 것으로 봅니다.

○**도종환 위원** 저작권법에 의하면 고대사 부분을 최희원 선생이 집필했으면 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전에 금성교과서 사건 때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그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을 위배하는 것이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것은 그 구체적인 사정에 들어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또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성명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빠지면 또 성명 표지가 검정 당시와 다르면 또 역시 합격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가상의 경우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수정권고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이게 현실화되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출판사에만 보낸 게 아니라 우체국에도 따로 한 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본인도 갖고 있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가상의 현실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것 합격 취소 요건들이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는 저희가 명백하게 오류라는 것을 밝혀서 보내 드리면 그분들이 당연히 그것을 따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류라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그걸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학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류라고 했는데 그게 오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수정을 안 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겠지만 아이들 배워야 될 교과서에 이런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따라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학자로서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따르지 않으면 합격 취소가 되는 데 그때는 그것도 그냥 가상현실을 그때 가서 판단하실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수정에 따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 기대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소샤 교과서하고 비교를 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중에 몇 개만 말씀을 드려 보지요.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소샤 교과서에는 무력시위를 계기로 조선에게 국교 수립을 강요했다고 되어 있어요.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이 해당 교수는 방송토론회에 나와서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는 왕조 국가였다. 고종의, 국왕의 결재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답변 적절하다고 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관동대지진, 후소샤 교과서에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 데 비해서 교학사 교과서에는 그냥 한 줄로 처리돼 있어요. “1923년 관동대지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하였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명희 교수가 ‘아니, 사진도 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도 실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일본교과서에서도 저렇게 70만 호가 넘는 피해를 받았고 그때 어떻게 됐고 그런데 저런 불온한 책동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학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저렇게 기술한 것에 비해서 우

리 교과서는 너무 소략으로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것들이 관동대지진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이라든가 또 나중에 한일합병이라든가 또 뒷부분에 가면 한일회담에 이르기까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다른 교과서에 기술된 대로 우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한다든가 강제 징집, 강제 징병, 징용 이런 피해, 원폭피해 이런 데 대한 배상 이런 거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침략에 대한 문제의식은 뚜렷하고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희정 도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장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실 위원 서남수 교육부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2013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영역은 총 11개 과목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이 중 11개 과목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시험을 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장실 위원 그중에 역사 과목은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이렇게 세 과목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2014년도에는 이게 좀 바뀌어 가지고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역사 과목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로서 국사와 근현대사가 하나로 통합돼서 시험을 치르게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런데 올해 4월하고 6월에 치른 2014년도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한국사 문제를 살펴보니깐 두 시험 모두 국사 문제가 7개, 근현대사 문제가 13개였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분량을 아마 기초로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함

니다.

○**김장실 위원** 하도 괴이해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더니 교육부가 발표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역사의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을 보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근대 이전 부분에 43개 성취기준, 근대 이후 부분에 27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는 38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17개가 근대 이전 내용에 대한 성취기준입니다.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계산해 보면 근대 이전의 성취기준이 60개, 근대 이후의 성취기준이 48개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이 더 많습니다, 성취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에서는 근대 이후의 문제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정한 성취기준하고도 안 맞고, 제가 봐서는 근현대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역사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려면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고대사라든지 중세사 이런 걸 죽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근현대사에 성취기준하고 동떨어진 식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단 수능시험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나기 때문에 중학교 부분은 제외하고 아마 고등학교 부분에 집중이 됐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나라 한국사 교육 내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사 부분이 그렇게 커야 되니까,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장실 위원** 거의 3분의 2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건 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한번 수능 출제를 하시는, 교육과정평가원인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장실 위원** 그쪽하고 좀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근현대사 비중이 근대 이전의 우리 긴 장고한 역사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할당되는 것이 합당한지.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수능 자체보다도 교육과정 편성이 지금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편성을 다음번에 개정할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리고 지금 검정된 한국사 교과서도 보니까 근현대사 편중이 심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도 천재교육은 총 407페이지 중에 국사가 190, 근현대가 206페이지이고 리베르스쿨은 385페이지 중에 국사가 184, 근현대가 190페이지, 미래엔은 총 363페이지 중에 국사가 160, 근현대가 194페이지, 모두 한국사 교과서가 근현대에 치우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근대 이전에 60개의 성취기준, 근대 이후에 48개의 성취기준을 두고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검정하실 때 당장 고치기는 어렵겠지만도 다음 교과서를 검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장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김장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유영익 위원장님, 2008년 5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홍근 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앞선 위원님들 질의에 대안교과서의 출간과 관련해서 축사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고개를 끄덕임)

○**박홍근 위원** 장관님도 그 축사 안에 있는 대안교과서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사와 관련해서 편향된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현행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교과서, 대안교과서의 출간으로 그 걱정을 덜었다. 그리고 필자 여러분께서 후손들을 위해 큰 일을 하셨다. 이 책의 출간을 후원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지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

의 출간은 훗날 그 자체로써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출판기념회, 2008년 5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이 행사에서 이런 축사를 했다라면 이것은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먼저 유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게 제가 얘기한 겁니까? 제가……

○**박흥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누가 하셨더라면 이게 적절한 축사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까 책에 직접 축사를 쓰신 거고, 추천사를,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여전히 일제식민지에 대해서 잘못된 기술로 점철된 교과서이고 현대사와 관련해서도 편향된 기술이 있어서 많은 논란의 증폭을 일으킨 그런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바로 전달됐다면 이러한 축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그렇습니다.

○**박흥근 위원** 장관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글썽, 그건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흥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러니까 대안교과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부분이 부적절하니까……

○**박흥근 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게 왜 논란이 되어졌습니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시대에 대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해서 기술됐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교과서포럼이 만들어진 근거인 소위 좌파적 시각의 교과서를 바로잡자 이 두 가지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흥근 위원** 그런 데 시각에서 와서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현재의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추천사는 잘못됐다고 본인도 인정, 국사편찬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장관께서도 그런 대안

교과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대안교과서의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축사가 잘못된 축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근대화 식민지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드물게 민주화와 경제……

○**박흥근 위원** 장관님, 아까 그렇게 누누이 일제 식민지시대에 대한 잘못된 기술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전체 중에서 그게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현대사 부분도 편향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교과서라고 인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잘못 기술했다고?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러니까……

○**박흥근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발언했다고 해서 지금 발뺌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했어요.

○**박흥근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만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흥근 위원** 제가 질의 시간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올해 연도, 그러니까 작년 시험 본 거지요, 수능시험 한국사 근현대사 과목 20개 문항 5점 배정돼 있는데 이 걸 좀 봤습니다.

그중에 보니까요,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좀 짚겠습니다.

2번 문항, 일제가 매점매석한 곡식을 해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방곡령을 조선민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인데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방곡령 선포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주제단락을 통해서 일제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11번 문제, 태형에 대한 것은 이걸 간단합니다. 이걸 12년에 제정된 건데 10년이라고 잘못 표기를 하고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3점이 부여된 12번 문제, 김구 선생이 참여한 한국독립당이 발표한 건국강령의 일부를 제시하

고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 나타난 독립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이 각각 해산되고 김구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독립당을 결성하는 내용의 지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에 이 통합운동에 대해서 전혀 기술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들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조차 못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시 3점이 배정된 18번 문제도 5·18 민주화운동, 이미 이것은 누누이 알려졌습니다마는 무차별 발포 상황을 지문으로 준 다음에 옳은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에는 아예 무차별 발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유신헌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은 아예 그런 기술 자체를 생략을 했고.

20번 문항, 6·15 공동선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지구 착공식 사진을 실어 놓고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남북선언은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만날 수능 만점자들이 ‘교과서에 있는 거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만점이 나왔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교학사 교과서 가지고 나와서 공부를 하면 이건 아이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이거 잠깐만 봐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교학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7종까지 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얻은 결론이 각기 주장이 다르다 이걸 느꼈습니다.

뵈으세요. 됐고요.

제가 예측은 했습니다.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상임위에 오게 되면 야당 위원들께서는 교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예측했습니다마는 정말 한결 같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교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편찬위원장 자격 시비도 하시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직히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편향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나머지 7종에 대한 교과서를 보니까 좌편향이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많습니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위원들은 교학사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 위원들은 그래도 7종을 골고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중간지대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충돌이,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이제 학자와 학자의 충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7종이 우리 한국사의 어린애들 교육을 지배해 왔다, 좌편향 교과서가 지배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저는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충돌이 저는 잘 됐다, 학자와 학자의 충돌 잘 됐고 또 정치인들 충돌 잘 됐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전에 바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 결국 우리가 오늘 좌편향 교과서 7개, 우편향 교과서 1개로 제가 한번 정리한다면 7 대 1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7 대 0으로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7 대 0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교육이 바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저는 오늘 야당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여당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교학사 잘못된 것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7종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교학사만 갖고 얘기를 해요. 짝을 자르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또 유명익 위원장님이 조금 과거에 우편향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 자르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사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잘되려고 한다면 내 당리당락, 또 학자들의 틀에 박힌 그 프레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학생들 교육을 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 긍정적인 것은 교학사가 그래도 수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천재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보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금성출판사 수정·보완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미래엔 한다고 하셨어요? 비상교육 한다고 그랬습니까?

장관님, 이것 강력하게 못 합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배해 왔던 좌편향의 교과서를 수정·보완해야 되는데 장관님 가만있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작업을 마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 요구를 하면, 수정권고를 하면 잘 따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염동열 위원** 작년에 1433건 이것 수정·보완 조치됐습니까? 못 하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교육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편향된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충격을 느끼셔야 되고요.

정말 오늘을 통해서 저는 호소하겠습니다. 정말 인간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또 바른 눈이 있다고 한다면,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유산이 저는 역사의 바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명익 편찬위원장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바른 교과서 만들 각오되어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명익** 거기에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사 교과서가 산출되는

데 여력이 다하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의 화장실 가는 것 외에 꼭 지키고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위치에서 본 시각을 버리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바른 양심, 바른 눈, 또 바른 발언, 또 바른 토론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희정**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사편찬위원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역사 인식을 요구하는데 우리 국사편찬위원장님께서 보여 주신 행적이나 말씀이나 저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문제에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를 아마 꼼꼼히 들으셨으면, 얼마나 잘못된 기술과 오류가 많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마치 이념의 문제인 것인양 호도해 버리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그렇게만 보실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교과서로 배워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체가 시간 개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교과서에서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능시험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무슨 답을 찍어야 되는 겁니까? 그 교과서 자체가 상당한 오류와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은 짧은데 드릴 말씀은 많네요.

장관님, ‘뉴스타파’라고 알고 계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들어봤습니다.

○**배재정 위원** 인터넷 독립 언론이지요. 오늘자로 나온 뉴스타파를 저희가 긴급하게 봤더니 그 내용증명을 보내신 세 분의 저자 중에 한 분 인터뷰가 났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많은 괴로움을 표시하신 부분들이 인터뷰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급하게 봤기 때문에 영상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상당히 오류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견이 있었으나 두 분 교수님께서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이 책이 검정에 합격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솔직히 백 번 낫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이 교과서가 그대로 나왔으면 하나?’라고 질문을 하나까 우리 장관님의 의견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내용증명은 받아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언론에 난 것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아주 자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판단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가 내용증명을 출판사에 보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뉴스타파 오늘 자로 나온 것이니까 장관님께서 꼭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안민석 위원님 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보신 적 없다고, 유영익 위원장님이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직접 면담한 일이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보신 적이 없는 건 아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텔레비전에서는 봤지요.

○배재정 위원 직접 만나신 적 없으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기파랑’의 지금 대표로 계시는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은 아까 또 잘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요, 안병훈 씨는 제가 잘 아는데요. 한 2년 전까지는 만난 일이 있지만 그 이후에 근래에는 전혀 만난 일이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근래에는 만난 적 없다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배재정 위원 일단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는 사진인데 박근혜 대통령님 만난 적 없다 그러시는데 유영익 위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거기에 있습니까?

○배재정 위원 여기 계시지 않으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그분하고 하여튼 말한……

○배재정 위원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있네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서로 인사를 한다든가 하면서 악수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사진은 찍으셨는데 악수는 안 하셨고 만나셨으나 만난 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하여튼 저 사진은 기억에 없는 정도로 그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배재정 위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당시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었을 텐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보시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면담을 하지 않았어요.

(김희정 간사, 김태년 위원과 사회교대)

○배재정 위원 처음에는 면담이라고 하시고 나중에 TV에서만 봤다고 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씀을 바꾸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면담한 것하고 그냥 본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배재정 위원 TV에서만 봤다면서요?

위원장님, 아까부터 왜 자꾸 제가 질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바꾸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말씀 바꾸시지 마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면담을 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아까 TV에서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배재정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진짜?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건 좀 착오인데요,

제가.....

○안민석 위원 말장난을 하시지 마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저 사진에 난 그 장면을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배재정 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도 못 하잖아요, 시간 다 가고? 왜 말씀을 자꾸 바꾸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만 하세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검정기준에서 가장 첫 번째가 헌법 정신과의 일치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희정 위원 여기서도 역시 첫 번째 기준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가 역시 모든 교과서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역사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게 38도 그러니까 이남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반도 전체에서 그렇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다면 공통 검정기준의 가장 1번 정신에 왜곡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해치는 교과서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래엔 같은 경우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다.”라고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라고 단서를 하고 있고요.

천재교육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지역’이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산동아에서도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에서가 아니라 38도 이남에서만 정통한 정부인 것처럼 정확하게 기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강은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성교과서에서는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있다라는 것을 명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상교육이나 금성이나 리베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오류가 있느냐면요.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있었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긍정적인 자세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유엔 결의문에는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감시하의 선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정의 1장 1조를 어긴 이 교과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거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교과서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상징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역대 대통령 사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등등등등 해서 모든 대통령에게, 그냥 단순 빈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빈도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진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군복을 입은 대통령 이전의 사진을 다 싣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장의 사진을 실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 남북정상회담같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진들만을 싣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물론 문제가 많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확일적으로 역시 수감복을 입은

사진들만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은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도 차이나 또는 어떤 사진이냐의 차이가 바로 교묘한 상징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으로 크게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천재교육의 교과서인데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만 사진들 사람 얼굴에, 작은 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그런 장면인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왼쪽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 오른쪽에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의 크기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에 동그라미 안에 빨간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박정희 대통령임을 알 수 있는 부분에도 저렇게 붉은색 동그라미를 쳐서 박정희 소장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사진에는 저렇게 작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치 사건의, 주요 사건 그것도 좋지 못한 사건의 어떤 당사자인 것처럼 표시하는 이런 식의 상징조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어떻게 하실지 장관님의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검정제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진을 실어라, 저런 사진을 실어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차례네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원식 위원 질의 시에 민왕후와 명성황후 이름을 두고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왕후와 황후의 차이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고종 임금이 1897년에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1897년 이후에는 고종황제라고 칭하고요. 그전에는 국왕 고종, 고종 임금 이렇게 칭합니다, 교과서에서.

그런데 황제가 되신 해가 1897년입니다. 그런데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것은 1895년이네요. 그때는 고종황제가 아니라 고종왕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후가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추존한 이름인데 이왕이면 명성황후가 전공자 아닌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민왕후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주장을 하시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이승만 연구자라고 그러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안민석 위원** 그런데 ‘하향정’을 정말 모르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뭘요?

○**안민석 위원** 하향정이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경복궁 안 경회루에 정자 지었다는 그 하향정을 모르세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 정자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정자가 있는 연못에서 낚시를 하셨다는 건 제가 아는데 그 정자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 존재를 아까 모르…… 지금 살짝 또 이야기가 바뀌시네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아니, 지금 제가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안민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처음 보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예, 처음 봅니다.

○**안민석 위원** 이것 이번 주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서 다 나왔던 것인데, 일본에 가 있는 고종황제의 투구가 공개된 건데 이것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사진 보여주면 다 아는 건데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장께서 이것을 모른다, 도

대체……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그게 언제 방영이 됐습니까? 어저께 됐습니까?

○**안민석 위원** 10월 1일 날 저녁에 KBS MBC SBS 모든 공중파, 모든 신문에 다 나온 건데요.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10월 1일에 제가 제일 바빴던 날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도대체 정말…… 굉장히 참 묘한 분인 것 같아요.

야스쿠니 신사를 다녀와 보셨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못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민석 위원** 역사학을 하신다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왜 피하셨지요? 일부러 안 가신 거겠지요, 안 가셨다면?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

○**안민석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역사 논쟁을 벌이면서 저는 정부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동안 이 관련한 내용을 현안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에 작성을 해서 오늘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언론보도 근거로 작성된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다각도로 주말도 반납하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성삼제 기조실장께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이해가 아주 깊으신 분인데 기조실장님 뭐 하셨어요, 한 달 동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 사무가 제 맡은 업무가 아니라서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안민석 위원**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이런 저런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저는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료가 오늘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각자 입장에서 각자 구미에 맞는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게 하루 종일, 참 제가 볼 때는 민망스럽고요.

2011년 국정감사 때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이 용어 두 개를 놓고서 국정감사가 3일 동안 파행된 적이 있어요.

성삼제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위안부를 찬양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이 교과서에 대해서 추천서를 쓰신 분이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앞으로,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예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 간에 이 전쟁터가 만들어진 것은 예고편에 불과한 거라고 봐요. 이제 본판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그런 대립이 있게 될 것인대요. 우리 교육 현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습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교사들이……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태년** 마이크는 지금 안 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 위원님들이 역사교과서 문제 가지고 현안질의 하면서 여야가 팽팽한 서로 간의 입장은 다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이 치킨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교사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과서 문제는 결국에는 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싸움에 불을 지핀 정치 세력들은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싸움의 결과가, 편싸움의 결과가 어떠한 파국을 맞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교과서 가지고, 역사 가지고 편싸움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정권 바뀌면 교과서 또 바뀌겠네요. 10년 후에 바뀌면 또 바뀌겠네요. 이게 할 짓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년**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질의에서 장관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신 대안교과서가 지금 교학사 교과서의 뿌리가 되고 있고 이것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과 세부 검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앞서 김태년 위원님 또 박홍근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검정기준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고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지 사례를 일일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부적인 검정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무사히 검정을 통과한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채점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8월 31일 날 검정 합격 통과는 발표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국편 검정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때 공고문에 지금 8개 종류의 교과서에 대해서 몇 점이라는 발표는 아니었지만 대략의 점수 기준대가 발표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알기로 리베르스쿨하고 비상 2개는 90점대, 나머지는 80점에서 90점대로 통과됐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내용을 검정 심사 발표할 때 발표 내용에 포함해서……

○**유은혜 위원** 언론에도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공고문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뒤에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교육정책실장 심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이렇게 발표된 게 맞습니까?

○**교육부교육정책실장 심은석** 예, 맞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장관님 이것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높은 점수로 검정을 합격 통과할 수 있었던 근거가 도대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점표를 반드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만 이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검정 절차를 밟았는지 그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채점표를 안 내시고 못 내시고 이러시면 문제가 있는 것을 옹호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채점표, 어떻게 절차를 밟고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것 그냥 한 장이니까 보여 주세요.

장관님, 지금 8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가 수정·보완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었던 다른, 교학사 교과서 외의 일곱 종류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 수정·보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 종류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작권료를 받는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가 자신이 쓴 교과서에 이러한 홍보 문구가 있는 진단지를, 그것도 자신의 주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서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서 추석 때, 9월 추석 귀향하는 그 시기에 서울역 앞에서 10만 장에 달하는 이런 홍보 문건을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처음 듣습니다.

○**유은혜 위원** 처음 들으십니까?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못 보셨나요?

저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기 문건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지요?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핵심가치로 삼아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한마디로 삶과 세계에 대한 진실되고 긍정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저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했구요.

반면에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수치스런 나라, 민족의 정통성은 평양에 있다”라는 친북사관에 의해서 우리 국사학계가 병들어 있다고 주장하고 “청소년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도 이 같은 병든 관점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서 부정적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같은 정신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주장을 저자가 이렇게 10만 장이나 되는 홍보물을 가지고 서울역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다 배포한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글썽요, 이명희 교수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은혜 위원** 그것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요. 수정·보완을 지시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아직 이게 배포되거나 인쇄되어서 밖으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이명희 교수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저 개인적으로 그게 크게……

○**유은혜 위원** 아니, 이명희 교수 개인이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명희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입니다. 본인이 저자인 교과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주장을 하고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냥 그러면 모든 저자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 교과서, 내 주장을 이렇게 홍보물로 모든 시민들한테 서울역 앞에서 돌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현장의 혼란과 역사적인, 역사교과서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은혜 위원** 아, 그러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은혜 위원** 이명희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입니다.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다른 교과서의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동일한 행동을 해도 그냥 묵인하고 용납하실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좋은,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

육부장관이 일일이 저자들 하는 행동 따라다니면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유은혜 위원** ‘따라다니면서’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통과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교과서에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앞의 질의가 있는 것이 마이크가 꺼져서 충분히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이 이명희,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되신 저자가 저렇게 유인물 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교과서 저자가 문제 제기 받으면 나가서 저런 식의 내용을 뿌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윤관석 위원** 처음 듣는 일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지금 밤 12시까지 집중적으로 질의받고 하는 내용이 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조신하게 자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서 사람 많은 서울역에서 무작위 홍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판단을 못 하신다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키기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판단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관석 위원** 판단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시고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내용을 안 갖고 오시고, 좀 아까 앞에 저도 준비하고 있다고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미 언론에 찍 뜨고 있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공동저자 세 분 중의 한 분이 인터뷰를 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보여 드릴게요. 이게 뉴스타파에 올

라운 내용입니다. “애들 가르치는 입장에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 자체에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지금 정리된 겁니다. “합격하고 꼭 학생들이 사용하고 한 거보다는 지금 저로선 솔직히 백 번 낫습니다. 저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현직 교사들인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것, 뒤늦게 기술된 내용들을 알고 자기들이 이 역사교과서 수정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내용증명 보낸 것들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자기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후회·참회·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장관께서?

○**교육부장관 서남수** 만약 그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당연히 가질 입장이라서……

○**윤관석 위원** 본인의 오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교과서가 이렇게 엉터리고 왜곡되고 친일적인 것을 몰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애들 가르치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차라리 자기들이 참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관석 위원** 아니, 맥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자습서 작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확인 하셨습니까? 그것 모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확인한 바 없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도 인터뷰에서 다 나왔는데, 통상 진행하는 자습서 제작 과정에도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것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 있으셔야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는 교과서 검정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습서까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자습서가 따로 별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그 교과서의 관련 자습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관련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서

는 이미 다 얼추 짐작이 되고 파악이 되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빨리 내 놓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계속 오늘 내내 위원들의 질의와 추궁을 받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하신 게 있습니까, 오늘 현안질의 과정에서요? 오전 내내 질의받으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윤관석 위원** 오늘 중에 또 요청하신 게 있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요청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어떻게 요청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교육부장관 서남수** 실무진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윤관석 위원** 연락이 됐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연락이 됐는데 제출할 수 없다고 그러는 답변을……

○**윤관석 위원** 세 분 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표 집필자한테 연락을 했다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 나중에 다 확인될 겁니다. 그렇게 접촉했는데 거절했다, 그분들이?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교학사 교과서가 또 얼마나 엉터리인지 검정기준에 보면 10번에 “사실, 개념, 용어, 이론 등은 객관적으로 정확히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5·16 혁명공약 6개가 있는데 5개만 하고 1개를 빼 버린 것 얘기 들으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들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게 기준 조항 10번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보여 지는데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이라도 검정 합격 취소만이 답입니다. 그래야 장관께서도,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이제는 본인의 역사적 평가와 더욱더 커다란 문제 제기에 바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빨리 신속하게 역사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년 일단 윤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유기홍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김태년 예,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장관의 허위 진술이거나 아니면 무능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태년 위원께서 차관한테 확인한 내용하고 장관이 오늘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였고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쫓 원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장관이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 있고 또 그분들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될 것을 장관은 한사코 자료제출에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고……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이미 언론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해당 상임위만 자료를 보지도 못하고 그분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새누리당이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할 명분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발언을 하셔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 보셨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직 못 봤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 내용 보시고 아까 본인이 얘기하셨던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이 말씀하신 뉴스타파 인터뷰 전문 장관께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정세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유기홍 위원님 차례입니다.

○유기홍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 세 분들의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이건 검정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 저희가 이때까지 세 군데 법률 검토를 받아본 입장이고 설사 장관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이것은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이름을 빼 달라는 표현이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검정 신청서에 6명 이름으로 들어갔다가 세 분이 이름을 빼 달라고 하면 나중에 책은 세 사람 이름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은 성명표지가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고 그리고 이분들의 허락 없이 수정할 경우에 그것은 저작권법에 직접적인 저촉이 되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던 아이들이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공부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그 교과서로 공부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료 중에 본질은 이렇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되었고 금성출판사 교과서 문제부터 포함해서 다른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은 새누리당 쪽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고 좀 과도한 주장이지요.

우리나라 유수의 출판사들이 종북사관, 친북사관 이렇다면 왜 그동안 새누리당은 이분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오류와 친일·독재 미화가 문제가 되자 갑자기 다시 일곱 종의 문제를 꺼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삼스러운 것 아닙니다. 17대 국회 때도 당시 권철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그 이후에 더 진전하지 않고 갔던 문제이고 몰 타기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덟 종 교과서 모두 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다른 일곱 종

교과서도 군 위안부 문제에 오류가 똑같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1942년 근로정신대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다 과거에 끝난 일로 되어 있었고 나중에 청구권 자금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보상까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교과서들은 이 문제를 과거에 끝난 역사로 보지 않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는 역사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산동아의 경우를 보면 ‘평화의 소녀상’, 수요집회, 나눔의 집 소개로 해서 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 주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리베르스쿨, ‘평화의 소녀상’ 되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그다음에 대한교과서,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고 비상교육에서는 나눔의 집·수요집회·할머니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고, 지학사는 ‘평화의 소녀상’ 소개로 학생들 토론문제 제시하고 있고, 천재교육은 할머니 증언·뉴욕주의 위안부 기념비 제시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이것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도 판단해 주십시오. 위안부 기술로서 어느 게 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역사이겠습니까? 이것을 과거에 끝난 일로 기술하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그리고 고노 담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었다 하는 얘기도 그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런이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기술도 하지 않는 그 교과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화의 소녀상’ 그리고 수요집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르치는 교과서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결론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신학용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희정 위원 예.

○위원장 신학용 예.

○김희정 위원 새누리당 위원들이 한 달여 동안

검토해서 준비를 했고 오늘 하루 종일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도 그것을 새누리당이 물 타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지적한 것 중에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분명히 검정기준의 제1장1조 대한민국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과서도 버젓이 있다는 것도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8개 교과서에 균등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새누리당의 물 타기라고 공격을 하다니요. 그것은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이 한 달 동안 헛짓하고 있는 겁니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오로지 한 교과서에 대해서만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같이 보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안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재교육이나 두산동아는 단 한마디 단어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에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유기홍 위원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제 말씀 좀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이것은 전제가 잘못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물 타기라고 얘길 했지 제가 새누리당 위원님들 얘기에 대해서 물 타기라고 했습니까?

○김희정 위원 새누리당의 물 타기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유기홍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아까 기자회견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다행스럽게 위안부 문제에서 다른 교과서와 동일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끝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기홍 위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교육부

의 보고 내용 중에서 다른 일곱 중 교과서도 다 똑같은 오류가 있다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유기홍 위원 발언 끝나게 하시고.

자, 김희정 위원님!

○**유기홍 위원**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오늘 방금도 새누리당의 물 타기라고 얘길 했었고 아까 상임위원회를 하다가 밖에 나가셔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야당 교문 위원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다른 7종 교과서까지 수정·보완하겠다고 물 타기 하며’ 이런 식으로 교육부 물 타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저희 새누리당 위원들이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나머지 교과서에 대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을 지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주장은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주장을 또 새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옳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교육부장관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 새누리당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쳐야 하고 그리고 지적하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그런 올바른 교과서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신학용** 예,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시간이 늦어가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제가 했던 증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반박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육부장관에게 오늘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한 반박으로서 제가 지금 얘길 하고 있었지, 그리고 교육부가 나머지 7종에 대해서까지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일 날부터 민주당에서는 물 타기라고 계속 공격을 해 왔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전혀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왜,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왜 그것을 막아 나서는지…… 교육부장관하고 오늘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하고 오신 겁니까?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위원장 신학용** 두 여야 간사님의……

○**유기홍 위원** 교육부장관이 아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신학용** 자, 여야 간사님의 서로의 주장을 말씀하셨다고 보고 나중에 그 관계는 또 속기록을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배재정 위원** 질의할 것 많은데 차수 변경하시지요.

○**위원장 신학용** 예?

○**배재정 위원** 질의할 것 많은데 차수 변경하시지요, 필요하면.

○**위원장 신학용** 차수 변경이요? 그것은 또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12시까지……

○**유기홍 위원** 저는 차수 변경 동의합니다.

○**김희정 위원** 속기록 확인하고 사과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른 교과서와 함께 수정하자는 게 물 타기입니까?

○**위원장 신학용** 김희정 위원님, 제가 한 대로 속기록을 한번 보고요. 그것은 추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수 변경에 대해서는 간사님…… 김희정 간사님?

○**김희정 위원** 잠시 정회하고 회의할 시간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지금 차수 변경을 안 하시게 되면 30분 회의 하다가 갑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요.

○**유기홍 위원** 질의를 더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좀 존중하셔서 질의할 게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신학용** 두 분이 상의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김태년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질의는 질의대로 계속하시자고요.

○**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요. 두 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좀……

예, 배재정 위원님, 또…… 다?

○**배재정 위원** 다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장 신학용** 우선 두 분께서 차수 변경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협의가 안 되면 12시까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박흥근 위원** 양당 간사가 지금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채택이 안 될 경우에, 이제는 채 25분가량 남아 있는데 그러면 14일 첫 국정감사는 일반증인 없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상임위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그래서 저는 양당 간사가 어떤 국감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그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야당에서는 누구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누구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왜 지금 여당에서는 누구를 반대하고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다 알려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양당 간사에게만 맡길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장 신학용** 그 문제를 제가 다 알려줄 수는 없고요 각 당 간사님에게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유용하게 추가질의……

○**박흥근 위원** 간사들에게 지금 위임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는 그러면 우리 야당에서는 각 증인들을 어떤……

각각 그러면 개별 위원들이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면 왜 반대를 하시는지 답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위임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박흥근 위원** 아니, 이게 법의 맹점 아닙니까? 결국은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증인 없이 간다는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받아내고 했지 그것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쪽에서 원하는 것 이쪽에서 원하는 걸 다 하나하나 까 가면서 질의한 그런 형태의 의사 진행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지금 시간 부족 때문에 지금부터 그 문제를 갖고 한다는 게 난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야 간사에게 말기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시간을 질의 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미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14일 날은 지금 증인 없이 그냥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라는 뜻하고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라도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히 들어야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위원들하고 간사 간 대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박흥근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위임을 해 났습니다마는, 위임을 해 났으나 지금 마감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위원들이 이것은 판단해야 될 문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어차피 그 내용을 모두 다 하나하나 따지기는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요. 지금 교과서 관련한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차수를 변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신학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사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진후 위원** 아니, 국정감사를 하는데 증인이

왜 불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듣고 그다음 문제 간사님들이 또 협의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은 간사님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위원장 신학용 위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저의 생각도 좀 말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촉박한 시간에 결정을 내자니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라도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여야 간사에게 맡겨두는 수밖에 없다라는 저의 현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 쟁점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 마지막까지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 퇴장)

○배재정 위원 차수 변경부터 먼저 좀 해 주셔야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20분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실 겁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정진후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정진후 위원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들 야당에서 먼저 좀……

○위원장 신학용 지금 3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검정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심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검정심사는 검정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각 출판사한테 ‘신청하세요’ 이러면서 안내문을 꼭 보냈어요. 이런 건 이 기준에 맞추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꼭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까 어긋난 것을 제가 다 보여줬잖아요, 지적해 줬잖아요. 어긋났으면 그건

당연히 심사를 못 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검정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웃음)

행정행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행정행위가? 아니, 요강에 안 맞았잖아요, 요강에. 그러면 당연히 배제 사유가 되는 거지요. 심사를 못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안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년 위원 장관은 그냥 몰라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심사……

○김태년 위원 검정심사위원회가 한 거니까 장관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검정심사위원회가 누구보다도 그 검정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검정심사위원회가 그렇게 심사를 했는데 장관께서 아까 제 설명을 듣고 보시기에 이게 맞냐 틀리냐 그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틀렸잖아요. 틀렸잖아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상업용 사이트 그거 배제 사유다……

검정심사위원회가 검정을 그렇게 해 버렸는데, 제가 아까 죽 다 보여 드렸어요, 요건에 안 맞다고. 그러면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사를 안 해야 되는데 한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관 보시기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검정심사위원회에서……

○김태년 위원 아니, 장관이 보시기에 어떻냐고요, 검정심사위원회가 그렇게 심사를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상업성을 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배제한다.’

다음 거 다시 한 번 돌려 보세요.

“학술논문의 자료 출전 수준으로 제시하여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술논문 수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까 국사편찬위원장 답변에 이렇게 포털에서 죽 굶어다가 쓰면, 출처도 불분명한 이런 자료를 쓰면 학술논문으로 심사 대상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된다……

인정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아예 심사를 맡았어야지요. 안 했어야지요. 서류 미비인데, 서류 미비,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서류 미비된 교과서를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신학용** 장관님, 계속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희……

아, 이에리사 위원님 계시네.

○**이에리사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강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장관님, 이미 검정에 합격한 8종 교과서를 취소하는 사유는 상당히 중대해야 가능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교과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생산적이 되려면……

저희 당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희는 어떤 교과서도 검정 취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이유는 이미 검정이 된 8종 교과서가 이러한 논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보다 올바른 교과서로 가급적 더 질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완벽한 교과서라고 저희는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다른 교과서와 사관이 다소 다른 부분도 저희는 이미 교과서를 조사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교과서 수정에 교육부가 많은 도움을 받기

를 바라고요.

다만 이러한 논란 이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새로운 교과서가 진입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교과서를 감수하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교과서가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검정 상태까지만 보고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교과서를 그냥 출판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 이러한 논란이 없었다면 교과서의 오류를 잡는 과정도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죽 검정 과정을 살펴보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교육부가 관여를 하면 마치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상당히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저희도 스스로 자제를 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검정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문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거쳐서 교과서 내용이 좀더 정확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2시 되면 자동으로 산회 선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부터 먼저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끝까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박창식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신학용 위원…… 또 기타 서면질의 내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네 분의 서면……

○**배재정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질의를 하면 서면질의를 안 해도 되고요 질의를 못 하면 서면질의를 해야 되는데……

○**유은혜 위원** 차수 변경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학용** 일단 배재정 위원님까지 넣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0월 8일 화요일에 예산결산 기금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개의하여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金世淵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 아직 10분 여유 있습니다. 3분 안에 끝 납니다. 1, 2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다음 질의 때 해 주세요. 다음 질의 때……

○**金世淵 委員** 아니, 아주 순수한 그……

○**위원장 신학용**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하고 그렇게……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차수변경 안 하실 겁니까?

○**金世淵 委員** 아니, 10분이 있기 때문에 1분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1분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다음 주 예결소위 일정이 월요일·화요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상임위 회의 전례를 보더라도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기간 중에는 본회의 시작 시간과……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산 처리라든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 본회의 중에 잠시 상임위가 개최되는 경우는 있지만 30분 정도 만에 마무리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틀 동안 잡혀 있는데 소위를 같은 시간에 개의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본회의 직후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일단은 10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의장에 승인 신청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간사 또는 예산심사소위원장께서 그것은 아마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世淵 委員**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예결산 기금심사소위원장께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위원장 신학용** 예, 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10시 30분으로 개의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또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교육부장관님, 좀 전의 제 질의에 장관께서 “교과사 교과서 집필에 참가한 교사 3명이 교육부가 수정권고를 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그 근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지금 여러 아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그분들이 수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정을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제시를 해 주면 당연히 저희가 또 그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 매체에 보도된 것 방금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 일간지에서 계속 받아서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인터뷰에 보면 장관님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본인들이 이런 교과서에 참여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늦었구나 하고 후회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정에 참여하고 또 성명제외를 철회하실 거라고 그래도 믿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저자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출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들 사이의 관계는 그것은 출판사와 저자들 사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또 반복되는데요. 고대사 한 분이 빠졌는데 현대사 한 분이 가서 그걸 수정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불가능하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자기가 집필한 내용은 그분들이 집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류가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문제라서 그것이 꼭 그분들이 직접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게 계속 낙관을 하고 계시는

데 장관의 수정 지시가 출판사에서 이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또 세 사람의 저작자 이름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지금 인터뷰한 걸 보면?

이렇게 되면 검정 합격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생각은 안 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

○**도종환 위원** 지금도 낙관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금 이런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고 인터뷰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다가 진짜로 이게 현실화되고 수정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또 수정과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렇게 돼도 지금 하는 낙관이,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리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양심에 따라서 수정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다,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으로서는 학자적인 양심으로 오류가 있는데 수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낙관하시는 거라는 말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낙관이라기보다는 마땅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심정을 계속 표현하고 있고.....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분들이 지금 표명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 위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판단이 가능하실 텐데요”라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냥 낙관하시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하고 저희가 지금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하고는 다른 종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냥 출판사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실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본적으로는 출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학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世淵 委員** 직전의 질의에서 맥아더 포고문과 그리고 소련군 포고문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가 선전 문구가 그대로 실린 반면에 하나는 행정 문서가 그대로 실리면서 지금도 우리가 일종의 이념에 있어서의 이런 내전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해방 전후시기를 관통해 온 이러한 동서 갈등의 연장선 위에 아직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미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폄하를 하는 반면에 소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그런 관점들이 이 문장과 어휘 속에 계속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작게 설명된 부분이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소련은 이를 후에 서둘러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다.” 지금부터는 소련군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일본을 제압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림니다.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군은 곧바로 만주지역의 관동군을 공격하는 한편 한반도 북부로 진출하여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8월 하순에는 38도선 이북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본군을 무장해제시켰다.” 즉 관동군을 공격하고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켰다, 소련이 일본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압해 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한 단락 건너뛰어서 “38도선 이남에서는 9월 초에 미군이 진주하여 조선총독의 항복을 받았다. 미국은 바로 군정청을 설치하고 38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광복 직후에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수립된 인민위원회 등과 같은 자치기구도 강제로 해산되거나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미군정청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일제 강점기 관리들을 그대로 기용하고 조선총독부의 행정체제를 활용하는 현상 유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 역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한 것은 사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기술의 방식과 어휘들을 보면 ‘직접 통치 선포, 임시정부 자격 인정받지 못하고 자치기구 강제 해산, 영향력 상실, 통치 편의, 일제강점기 관리 기용, 조선총독부 행정체제를 활용하는 현상 유지 정책’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균형 잡힌 역사 서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역사 서술의 편집 관점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그 당시의 세계사 조류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균형 잡힌 서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양당 간사님들의 협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차수 변경을 위해서도 산회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조건을 달면서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해야 되는 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질의를 하고 산회를 하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 질의를 좀 하고……

○위원장 신학용 1분 남았는데요.

○배재정 위원 2분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강은희	김상희	김세연	김장실
김태년	김희정	도종환	박성호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서상기	신학용	안민석
염동열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이에리사	이학재	정세균
정진후	현영희	황우여	

○청가 위원(1인)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용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서남수			
차관	나승일			
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교육정책실장	심은석			
창의인재정책관	김성기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출석 위원(27인)